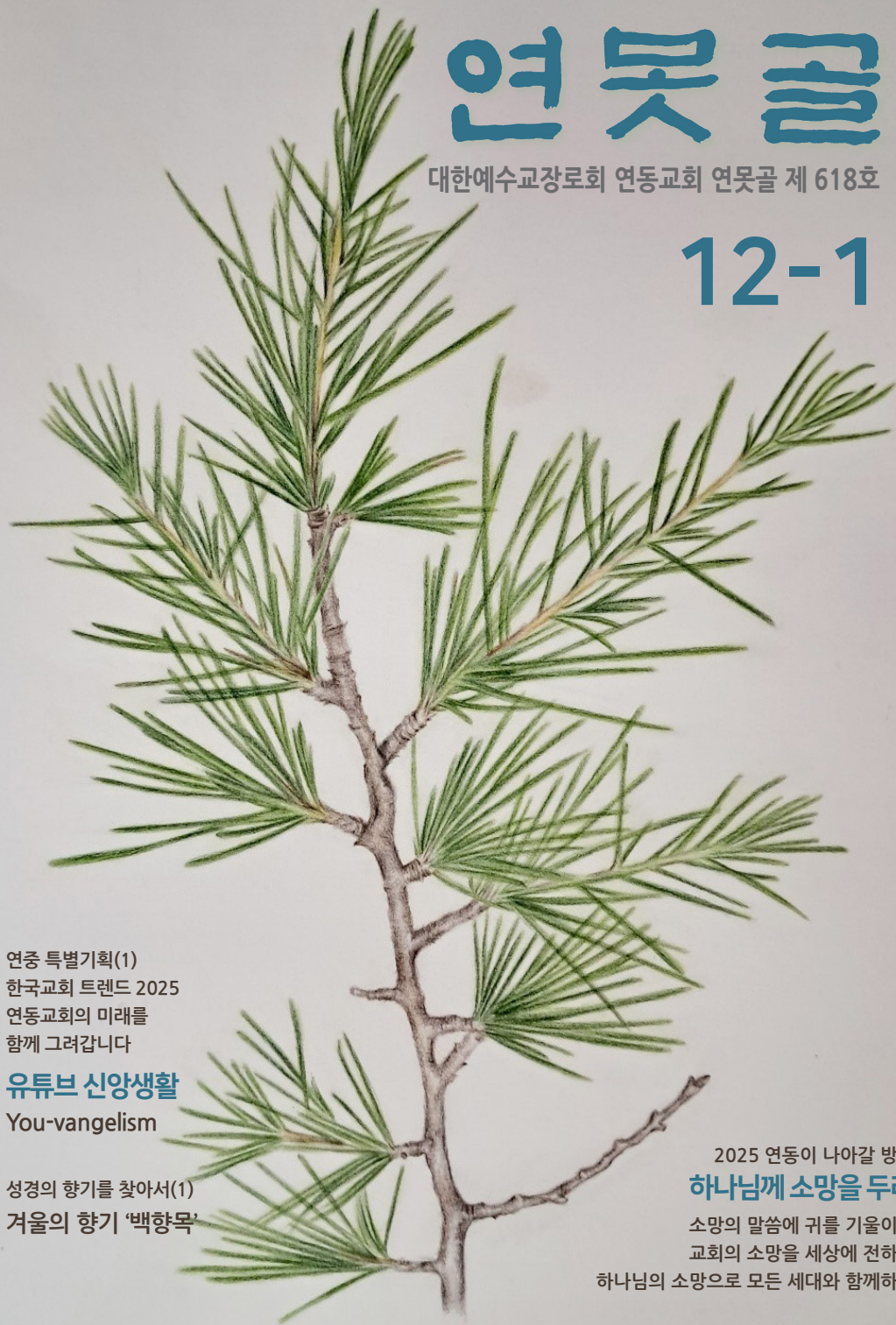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18호

12-1



연중 특별기획(1)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연동교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유튜브 신앙생활
You-vangelism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1)
겨울의 향기 '백향목'

2025 연동이 나아갈 방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교회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모든 세대와 함께하라

실만한 물가

우리의 순수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벌거벗었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용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대답 없는 질문,
그 단호한 의심은 --
침묵한 채 부르고, 귀먹은 채 듣는 --
불행 속에서,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서도
타인을 격려하고
패배 속에서도 영혼이
강해지도록 자극하는가? 그는
깊게 보고 기뻐하며,
필멸에 응하며
감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다, 마치
깊게 갈라진 바다가 자유로워지려
분투하다가 불가능하게 되자
굴복 속에서
자신의 지속을 찾는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는 자는
그리 행동한다. 노래 부르며
점점 더 자라는 바로 그 새는
자신의 형상을 똑바로 단견하지. 비록 사로잡혔으나
그의 힘찬 노래는
말하지, 만족이란 천박한 것.
기쁨이란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이것이 죽음이며
이것이 영원이라네.



CONTENTS

2024년 12-2025년 1월호

04 위임목사 신년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김주용 위임목사

06 원로목사 신년사

“모든 가정에 기도 소리가 우렁차기를 바랍니다” 이성희 원로목사

08 2025년 목회지침

11 2025년 교역자 직능 분담표

12 2025년 연동교회 행사 계획

14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1)

유튜브 신앙생활

19 2025년 연동교회 장학생 모집

연못골 광장

20 1018예수사랑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김유나 성도(중등부 3학년)

21 2030새벽이슬 “하나님께 의지해 청년부를 섬기겠습니다” 김민성 성도(HI청년부)

22 4050광장 연동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이성식 성도(동작관악구역)

23 살며생각하며 다시 연동교회를 섬기며 이만규 지도목사(구리남양주양평구역)

청년광장

24 HI청년부 새해, 기도와 감사로 출발한 하이청년부

주님과 함께하는 삶

26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1) 겨울의 향기 ‘백향목’ 김환 목사

28 연동 북하우스(18) 양과 목자

선교

-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두관석, 이선아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
- 32 중국어예배반 2025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국어예배반의 비전과 사역 방향
- 33 필리핀예배공동체 WIN 제자 훈련, 2024년 마무리하며, 2025년 새로운 도약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 34 청소년주일학교

연못골 사람들

- 42 비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5) 기계공학연구원 이강욱
- 44 새신자 어게인(18)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경록 성도(중계구역)
- 46 은퇴 및 추대식
- 50 이임목사 인터뷰 “잊지 않고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김윤기 목사
- 51 지체들
- 74 교회 첫 출석 아기 & 유아세례
- 76 새가족 소개
- 77 연동복지재단
- 78 신탁 현황, 목양위원회
- 79 연동컬러링

제목: 백향목 나뭇가지(모작模作)

크기: 30cm × 42cm

재료: 색연필

제작일: 2023년 10월

그림내용: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백향목의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결이 굵고 단단하며 위엄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번영, 의인의 번성을 상징하기도 했던 백향목은 늘 푸른 상록수로, 레바논 상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호 26-27p에서 백향목 관련한 내용을 더 읽으실 수 있습니다.-편집자주)

작가: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성도가 자신을 CEO교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1년에 크리스마스(Christmas)와 부활절(Easter)에만(Only) 교회에 가기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담임목사는 그렇게 교회 오게 되면, 끝내는 가짜(Fake) CEO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CEO교인’(Fake CEO Christian)이라는 표현의 F자는 장례식(Funeral)에서의 F자를 빼서 가짜(Fake)를 만들어 넣어 농담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고를 들은 CEO교인은 가짜(Funeral)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롯해서 매 주일예배를 신실히 드렸고, 그 성도가 별세했던 마지막 해에는 장례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지만, 그는 가짜(Fake) CEO교인이 아닌 진짜(Faithful) 성도가 되어 참된 신앙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꿈의 방향은 어느 쪽이며 소망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몽골선교사 자녀로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 시즌2에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우승을 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이찬혁은 2022년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장례희망’

어린 시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희망사항을 적는 것을 ‘장례희망’이라고 하는데, 가수 이찬혁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장례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김주용 위임목사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쟁과 문명의 충돌, 이상기후와 경제적 침체, 비상 계엄령의 충격과 사회적 갈등과 세대의 반목은 2025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어둔 밤의 연속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래 희망을 꿈꿔야 하는 세대조차도, 더욱 깊어지는 양극화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들 속에서 내일이 아닌 과거의 그늘진 것만 끌어안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긍정적 장래희망이 아닌 죽음과 어둠을 가슴에 품고 장래희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시 78:7)는 새해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의 가장 짙은 어둠은 곧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암흑의 경험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를 가던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해에는 장례식까지 포함해서 3번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는 충고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회복했던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시간은 도리어 참된 영성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장’래’희망이 아닌 죽음의 장’례’희망을 노래하는 가사 속에서 지은이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래희망이 진짜 장래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가장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빛이 비취질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 기도 소리가 우렁차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가 자욱한 안개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산길처럼 다가와 조심스레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울한 시계 제로의 세계는 희망도 기대감도 갖아가고 염려와 근심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맛이 없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해를 맞이하는 부푼 가슴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와 교회의 근대사에 살기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고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남북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통하여 형제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죽여야 사는 처절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였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 문민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이념의 날 선 대치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첨예한 대립은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시 상황 같은 삶의 환경은 우리 사회를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가 가슴에 깊이 스며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고, IMF도 코로나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오히려 처럼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경제는 성장하게 하였고, 종전도 이루지 못한 분단된 나라의 문화가 ‘K’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환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everything’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K’가 모든 것을 통하게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곧 해가 뜹니다. 짙은 구름을 뚫고 밝은 해가 온 땅을 비추듯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로 새해를 비추십니다. 온갖 불의와 갈등과 미움과 싸움을 몰아내고 정의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를 실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이성희 원로목사

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미리 아신 바 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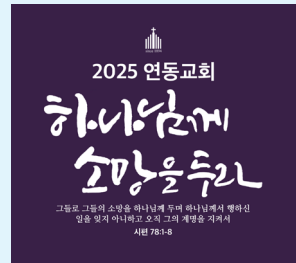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지구촌 어느 곳에도 참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의 살상에도, 무너져가는 경제지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전쟁의 광기에 세계인을 볼모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허셨습니다. 우리도 온갖 장벽을 헐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순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이 절실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순결이 절실하고,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순결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요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동의 모든 가정들에 기도하는 소리가 우렁차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제성경: 창세기 32:25-30, 사도행전 11:19-26



목적문: 한 성도가 자신을 CEO교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1년에 크리스마스(Christmas)와 부활절(Easter)에만(Only) 교회에 가기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담임목사는 그렇게 교회 오게 되면, 끝내는 가짜(Fake) CEO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CEO교인'(Fake CEO Christian)이라는 표현의 F자는 장례식(Funeral)에서의 F자를 빼서 가짜(Fake)를 만들어 넣어 농담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고를 들은 CEO교인은 가짜(Funeral)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롯해서 매 주일예배를 신실히 드렸고, 그 성도가 별세했던 마지막 해에는 장례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지만, 그는 가짜(Fake) CEO교인이 아닌 진짜(Faithful) 성도가 되어 참된 신앙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꿈의 방향은 어느 쪽이며 소망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몽골선교사 자녀로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 시즌2에서 '악동뮤지션'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우승을 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이찬혁은 2022년에 '장례희망'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희망사항을 적는 것을 '장래희망'이라고 하는데, 가수 이찬혁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장례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문명의 충돌, 이상기후와 경제적 침체, 비상 계엄령의 충격과 사회적 갈등과 세대의 반목은 2025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어둔 밤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래희망을 꿈꿔야 하는 세대조차도, 더욱 깊어지는 양극화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들 속에서 내일이 아닌 과거의 그늘진 것만 끌어안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긍정적인 장래희망이 아닌 죽음과 어둠을 가슴에 품고 장례희망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시 78:7)는 새해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의 가장 짙은 어둠은 곧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암흑의 경험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를 가던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해에는 장례식까지 포함해서 3번 교회에 가게 될 것이라는 충고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회복했던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시간은 도리어 참된 영성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장'래'희망이 아닌 죽음의 장'례'희망을 노래하는 가사 속에서 지은이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래희망이 진짜 장래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가장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빛

이 비취질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목표

(1)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시 78:1-3) - 말씀의 신앙

시편 78편 1-2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증거하면서, ‘내’(나)라는 1인칭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내 율법’과 ‘내 입의 말’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과거 하나님의 말씀(내 율법)과 현재의 선포(내 입의 말), 미래의 예언(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통해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 삶을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소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교회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라 (시 78:4-5) - 선교적 교회

시편 78편 4-5절의 각각 후반절에서 “...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4절)와 “...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5절)라고 증거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면, 이제 그 소망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실재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케리그마)와 예배(레이투르기아), 양육(디다케), 교제와 친교(코이노니아), 봉사(디아코니아)를 선교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소망과 빛을 비추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소망으로 모든 세대와 함께하라 (시 78:6-8) - 시대를 응답하고 세대를 품어내는 교회

시편 78편 7-8절에서 조상들은(기성세대) 완고하고 패역하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다음 세대)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다고 증거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7절)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에 응답하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세대에게 가르침과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성세대는 고집을 부린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증거합니다. 한편 다음 세대는 정직과 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 안에 ‘소망’은 모든 세대를 거둬나게 하며 각 세대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시대를 응답하는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세대의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실천사항

(1) 말씀 & 양육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말씀과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데바레카 성경통독 팀을 통해 전교인의 말씀 훈련을 진행하고 (2) 향존직 선거가 있는 해로, YD리더스쿨을 통해 선출된 향존직에

대한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며 (3) 새가족부의 새로운 양육프로그램으로 새신자들의 정착을 도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 교육 & 차세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교육과 차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미래세대부의 각 수련회와 청장년부 단기선교,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연동교회만의 아웃리치를 계속 살려 소망의 실재를 찾아가며 (2) 3040세대를 위한 쌍쌍 교구의 지속적인 혁신과 다양한 쌍쌍 구역의 재편을 통해 교회 부흥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3)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10월에는 연동교회의 역사를 담아내는 특별한 청소년주일학교 교육교재를 만들어 연동만의 색깔있는 기독교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3) 예배 & 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예배와 전도에 대한 실천사항은 (1) 클래식한 예배(1부와 2부)에서부터 현대적 예배(3부와 4부)까지 다양한 예배를 통해 성례전의 다이내믹을 찾아가고 (2) 전도활동팀의 적극적인 전도사역을 통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근원부터 만들어 세워가고자 합니다. 또한 (3) 교회의 이웃이 되는 주변 지역의 회사들과 기관들의 관계를 다양한 문화 행사로 연계하며 올해는 직장인 예배 준비의 해로 나아가, 직장인 선교의 필요한 역할을 준비할 것입니다.

(4) 신앙 & 신학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올바른 실천사항은 (1) 교회창립 130주년으로 실시했던 YD페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받아 새로운 YD페스타를 준비하여 복음의 역동성을 찾아가며 (2) 계속해서 '환경선교사 과정'과 같은 '공적 제자도 학교'의 다양한 신앙과 신학의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소망의 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5) 교제 & 영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교제와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1) 어느 해보다 소그룹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그룹의 교제와 영성을 지원하며 (2) 영성금식수련회와 중보철야기도회, EPS 삶&영성 소그룹 등을 통해 성도들의 일상 속 영성을 높여 가며 (3) 교회 어르신들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 실버아카데미와 각 은퇴자 그룹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6) 선교 & 구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5년의 선교와 구제에 대한 실천사항은 (1) 다문화 예배 공동체인 중국어예배반과 필리핀예배공동체와의 선교적 협력 사역들을 함께 구상하며 (3) 성도들의 자치회 모임을 적극 후원하여 활성화 시키고 (3) 계속해서 연동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마를 살리기와 구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러브릿지 온'의 쪽방촌 도시락 사역을 매월 2회씩 전교인이 참여하는 사역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4) 환경보전팀의 구체적인 녹색교회 운동에 참여를 지원하며 구제봉사팀의 긴급구제 사역의 준비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할 것입니다.

2025년 교역자 직능 분담표

일정	지역관리	예배와 예전	교육	제직부서	지도부서
김주용	위임목사 전체지역 상담 및 심방	성례 집전 주일예배설교와 인도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결혼식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 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권사 성경공부	당회 & 제직회 교역자회 사무처 등	각 위원회 목양위원회 권사회/여전도회 대외관계업무 복지재단
박요한	(선임)부목사 1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예배부 총무부 재정부 상례부	목양위원회 (이단대책위 기독교가치관교육팀) 세계선교위원회 입교세례교육
계대운	부목사 5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미래세대부 영성훈련부	연동상담학교 직장인선교팀 복지재단
오한빛	부목사 3교구 상담 및 심방 목회협력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친교부 국내선교부	1 남녀선교회 다문화선교팀 전도활동팀(국내선교부)
김환	부목사 4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문화선교부 새가족부	방송실 (디자인 및 미디어) 4남녀선교회
이진우	부목사 2교구 상담 및 심방	예배인도와 안내 주일오후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구 장례 집례	교구 구역지도자성경공부 교구 전체 모임 YBS	음악찬양부 평신도교육부 사회봉사부	일대일제자훈련 3남녀선교회 중보기도팀(목양위)
박주안	부목사 청년부 총괄 상담 및 심방	주일 4부 예배 수요기도회 청년 장례 집례 새벽기도회(1회)	청년리더성경공부 YBS(장년 및 청년)		청년부 총괄 및 1부 장년부 은퇴권사회
이현주	지도목사				찬양선교단 (수요/3부/ 주일오후 찬양인도)
이성은	음악목사				게일찬양대 지휘
박점분	지도목사		성경통신강좌		중국어예배반 실버아카데미
전소망	준전임전도사		성경통신강좌		미래세대부 지원

2025년 연동교회 행사 계획

월	주	일	예배	주간행사	주요 회의
1월	1	5	신년주일, 성례주일	신년특별저녁기도회(1-3), 목회자영성금식 수련회(6-8), 교역자수련회(10)	제작회
	2	12		중등부, 고등부 겨울수련회(17-19)	
	3	19	여전도회주일(헌신예배)	온제직간찬회(23), 러브릿지_ON(溫)(25)	
	4	26	교사헌신예배	설 연휴(27-30)	설날 당일(29일-수)
2월	5	2	제직원 헌신예배 및 세미나	목요기도회(6), 초등부 겨울성경학교(7-8)	
	6	9		러브릿지_ON(溫)(15)	
	7	16	세계선교주일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중로시찰 연합일부흥회(19), 청년부 겨울 수련회(21-22), 새학기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22)	
	8	23	3.1절 예배		당회, 교구전체모임(28)
3월	9	2	구역지도자 헌신예배	삼일절 대체휴일(3), YBS개강(4), 불경기심방 시작(4), 구역장 성경공부 개강(5), 재의 수요일(5), 실버아카데미 개강(5), 목요중보철야기도회(7-8)	제작회
	10	9	남선교회주일(헌신예배)		
	11	16		상반기 숲속아기학교(22일, 5주간)	
	12	23	이단대책세미나1(오후)	러브릿지_ON(溫)(29), 음악찬양부수련회(29)	교구전체모임(28)
	13	30	음악찬양부 헌신예배	목요기도회(3), 한식합동추모예배(5)	
4월	14	6	성례주일		
	15	13	종려주일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14-19)	
	16	20	부활절, 부활축하음악예배(칸타타)	서울노회(24), 러브릿지_ON(溫)(26)	교구전체모임(25)
	17	27		향존직 선거(장로 1차), 새참음악회(30), 목요기도회(1)	당회
5월	18	4	어린이주일(온세대 예배)	향존직 선거(장로 2차), 어린이날/석가탄신일(5) 대체휴일(6)	제작회
	19	11	어버이주일(경로잔치)	향존직 선거(장로 3차)	
	20	18	청년주일	향존직 선거(안수집사, 권사 1차)	교구전체모임(23)
	21	25	찬양예배1	향존직 선거(안수집사, 권사 2차), 오르간연주회(28), 러브릿지_ON(溫)(31)	
6월	22	1	기독교가치관팀세미나1(오후)	목요기도회(5), 현충일(6)	
	23	8	기드온순방주일, 환경기념주일(오후)		
	24	15		사랑의 쌀1-1(15), 구역장성경공부 종강(18), 구역장 위로회(20)	
	25	22	북한선교주일	사랑의 쌀1- 2(22), 실버아카데미 종강(25), 러브릿지_ON(溫)(28)	교구전체모임(27)
	26	29	상반기 새가족수료예배	목요기도회(3), 청 · 장년부 여름단기선교(6/30-7/10)	당회

월	주	일	예배	주간행사	주요 회의
7월	27	6	성례주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12-13)	제직회
	28	13			
	29	20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25-27), 러브릿지_ON(溫)(26)	
	30	27		중등부, 고등부 여름수련회(8/1-3)	
8월	31	3		목요기도회(7), 리더스쿨(8.3-9.28)	
	32	10	해방기념주일	광복절(15), 청년부 여름수련회(14-16)	
	33	17			교구전체모임(22)
	34	24		자녀축복기도회(30), 러브릿지_ON(溫)(30)	
	35	31		YBS개강(2), 가을정기심방 시작(2), 구역장성경공부 개강(3), 목요기도회(4)	당회
9월	36	7			제직회
	37	14	찬양예배2	장년부 수련회(19-20)	
	38	21	세계선교특별봉헌	이단대책세미나2(24), 러브릿지_ON(溫)(27)	교구전체모임(26)
	39	28		목요기도회(2), 개천절(3), 추석합동추모예배(4)	
10월	40	5	성례주일	추석(5-7), 대체휴일(8), 한글날(9)	
	41	12	게일세미나(오후)	기독교가치관팀세미나2(15), 창립기념특별새벽기도회(13-15), 신앙사경회(15-17)	
	42	19	창립기념주일, 창립기념음악예배(칸타타)	YD샌드위치 콘서트(22), 영성금식수련회(23-25), 러브릿지_ON(溫)(25)	교구전체모임(24)
	43	26		사랑의 쌀2-1(26), 중보절야기도회(10/31-11/1)	당회
11월	44	2	청년부 정기총회	사랑의 쌀2-2(2), 이집트 성지순례(3-15)	제직회
	45	9	일대일수료예배		
	46	16	추수감사주일, 교구별찬양대회	구역장성경공부 종강(19), 교사대학(22)	
	47	23		구역장 위로회(28), 영성금식수련회(28-29) 성탄트리 점등(29), 러브릿지_ON(溫)(29)	교구전체모임(28)
	48	30	대림절 첫째주, 성경통신수료예배	실버아카데미 종강(3), 목요기도회(4)	
12월	49	7	대림절 둘째주, 새가족 수료예배		교구전체모임(12)
	50	14	대림절 셋째주, 임직 및 은퇴식	2026신임집사교육(14)	
	51	21	대림절 넷째주(성탄발표회 및 수료예배)	2026신임집사교육(21), 성탄절(25), 온세대 예배 및 성탄절 칸타타(25) 러브릿지_ON(溫)(27)	
	52	28	송년주일	새해맞이예배(31)	당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연동교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유튜브 신앙생활



〈연중특별기획 목차〉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2. 신앙양극화, 가족 종교화 3. 정신건강, 싱글 사역
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5. 평신도 사역, 해외 선교 트렌드 6. 교회의 세속화, 애플로그

연중특별기획팀: 박윤신, 이경아,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프롤로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2025년을 맞아 ‘연못골’은 연중 6회에 걸쳐 특별기획을 연재합니다. 이 연재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보고서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10개의 주제로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회 영향력 감소와 신뢰도 하락, 교인수 감소 등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마주한 2025년의 키워드를 10가지로 짚어 전망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10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한국교회 2025년

①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유튜브 신앙생활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하며 신앙에 도움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일까요?

② 멘탈 케어 커뮤니티(Mental Care Community): 성도의 정신건강

교회 내에도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 마음을 돌보며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③ 포텐셜 레이어티(Potential Laity): 평신도 사역

평신도들이 예배와 사역에서 더욱 주체적인 역할을 하며 부교역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④ 오소프락시(Orthopraxy): 신앙 양극화

신앙 양극화의 긍정적인 축으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긍정성이 더욱 성숙하게 발현되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⑤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가족 종교화

부모 자녀 간 종교 일치 심화 현상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효과가 있습니다. 개신교 확장성에 한계를 갖게 하는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⑥ 스피리추얼 Z세대(Spiritual Gen Z): 20대 청년세대

기대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20대.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준비되어 있나요?

⑦ 싱글 프렌들리 처치(Single Friendly Church): 싱글 사역

30대를 지나 40대로까지 점차 늘고 있는 미혼자들은 교회 문화권에서 소외된 그룹에 속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의 삶을 존중하며 이들이 교회 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싱글 친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⑧ 시니어 미니스트리(Senior Ministry): 고령 교인 사역

초고령화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연동교회의 당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니어 사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⑨ 솔트리스 처치(Saltless Church): 교회의 세속화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에는 교회의 세속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닮아가는 교회 현상을 살펴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봅니다.

⑩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Mission Beyond Tradition): 해외 선교 트렌드

급변하는 세계 선교 흐름 속에서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 등 부상하는 선교의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가 참고할 방향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번 연중기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기회

이번 연재는 단순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내용 속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동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주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연동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제별 기사와 함께하는 소그룹 나눔이나 실천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회 연중 특별기획은 ①유반젤리즘, ②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③정신건강, 싱글 사역, ④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⑤평신도 사역, 해외 선교 트렌드, ⑥교회의 세속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번째로 “유반젤리즘(유튜브 신앙생활)”을 실었습니다. 연동교회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0대 키워드

1. 유반젤리즘 (유튜브 신앙생활)
2. 멘탈 케어 커뮤니티 (정신건강)
3. 포텐셜 레이더티 (평신도 사역)
4. 오소프락시 (신앙 양극화)
5.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화)
6. 스피리추얼 Z세대 (영적 Z세대)
7. 싱글 프렌들리 처치 (싱글 사역)
8. 시니어 미니스트리 (고령교인 사역)
9. 솔트리스 처치 (교회의 세속화)
10.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해외 선교 트렌드)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유튜브 신앙생활)

- A집사의 하루 일과는 유튜브에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일찍 먼 거리에 위치한 교회에 다녀와야 할 일이 줄었습니다.
- B장로는 자동차 운전할 때면 유튜브를 켜고 찬양이나 설교를 듣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CD플레이어가 무용지물이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 새신자인 C성도에게 유튜브는 친절할 멘토입니다. 어려운 성경용어와 성경구절의 해석, 궁금한 신앙상담, 성경공부를 유튜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D권사는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 유튜브를 통해 코스를 답사하고 그에 따른 신학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하게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튜브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 익숙한 콘텐츠입니다. 이른바 유튜브 에반젤리즘(YouTube Evangelism), 즉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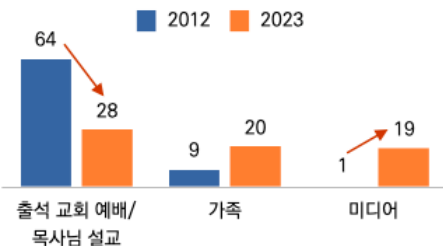
교인들에게 점차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영향력

최근 10년 사이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으로 '출석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는 절반 이상(64%→28%) 크게 감소한 반면, '미디어'는 1%에서 19%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IT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에 앞으로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미칠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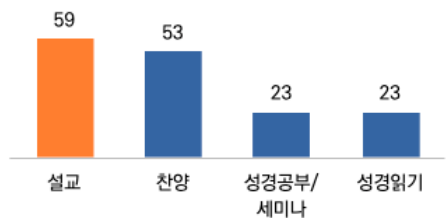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넘버즈' 241호). 기독교인이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는 '설교(59%)', '찬양(53%)', '성경공부(23%)', '성경읽기(23%)' 순으로 나타나, 유튜브가 신앙생활의 보완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60.7%는 유튜브를 하루 평균 113분(일반인 107분) 사용하며, 그 가운데 86.4%가 기독교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는 20대보다도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2배 더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전 세대가 유튜브에 친숙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찬양을, 중년 이후 세대는 주로 설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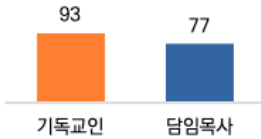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 (기독교인, 상위 3위, %)



[그림]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기독교 유튜브 시청하는 교회 출석 기독교인, 1+2순위, 상위 4위, %)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 ~01.16.)

[그림] 기독교 유튜브 신앙생활 '도움 된다' 인식*
(기독교 유튜브 시청 교인, %)

*4점 척도

[그림]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얻은 유익 (기독교 유튜브 시청 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기독교교인의 대다수(93%)는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목회자 77%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고(88%)',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87%)', '신앙 성장을 이루는 데 편리하고 효과적이고(87%)', '신앙적 도전을 받고(77%)'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튜브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의 지형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화하는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위기와 기회

현대사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교회가 독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증하며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현상은 더 두드러져 시간과 장소, 언어를 초월해 신앙생활의 지적 욕구와 영적 욕구를 미디어를 통해 충족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예배에서 빠져나간 교인들 가운데 유튜브 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숫자도 아직 상당합니다.

연동교회 역시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유튜브를 시작한 연동교회는 구독자 수십 명에서 시작해 코로나 기간 동안 증가세를 타더니 2021년 신앙사경회(강사 이재철 목사)를 기점으로 삼시간에 구독자가 불어나 2025년 1월 현재 7,980명의 구독자와 5,600여 개의 동영상상을 보유하도록 급성장했습니다. 최다 조회수가 말해주듯 연동교회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는 설교(1개 콘텐츠당 최다 36만 회), 찬양(1개 콘텐츠당 최다 1.5만 회), 오락(1개 콘텐츠당 최다 4.5천회) 순으로, 연동교인뿐 아니라 타교인들에게도 설교와 찬양이 우선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데, 교인 간의 대면 교제와 어린이 교회교육입니다. 유튜브의 활성화로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해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교회 내 소그룹의 활성화"를 꾸준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교인끼리 서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선교의 문이 생각지 않게 유튜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반젤리즘 시대를 맞아 연동교회 역시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유튜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되길 바랍니다.

- 유반젤리즘이 던져준 과제** : 1. 교인 간 교제와 성장 도모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방안
2. 미래 세대 양육을 위한 어린이 예배와 프로그램 강화
3. 새로운 선교 기회를 위한 유튜브 활용 방안

2025년 연동교회 장학생을 모집 합니다

〈장학 기금명과 지급 대상자〉

196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57년째를 맞이하는 연동장학회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년 15~2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해오고 있는 연동장학회는 28개 장학기금으로(총액 약26억원) 다음세대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학생 중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며 학교 성적도 우수하여 장차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해당 학생은 장학생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세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과 봉헌을 기대합니다.

5천만원 이상 출연 시에는 개별 장학기금 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을 위한 소액의 봉헌도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4일(금요일 24시까지)
- ◇ 장학금 지급 예정일
2025년 2월 17일~21일경
- ◇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한 학생에게 최대 4회까지 지급 (한 가정 한 학생)
- ◇ 대학생 한 학기당 200만원, 고등학생 한 학기당 80만원
- ◇ 연동 권사회 장학금은 신대원생(목회 지망생) 2~4명
- ◇ 이지역 장학금은 장신대 신대원 학생 학기당 등록금 전액 (2명, 장신대에서 선정)
- ◇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결격 사유(휴학 등)가 없는 한,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NO	장학기금명	출연자(가족)	지급대상자
1	연동	연동교회 교우들	대학생
2	동해	유경실, 오재호 가족	
3	하양	장하린, 홍대숙 가족	
4	운암·순원	박문희 가족	대학생
5	회연	김응식, 이보숙	고등학생
6	선유	송선영, 함유순 가족	대학생
7	부암	나기환, 나성 가족	정신여고,경신고학생
8	세종	윤석현, 최영준	대학생
9	정은옥	정은옥, 문우철 가족	
10	최우암	최우암	
11	원정	최정례, 한영신 가족	대학생,신대생
12	운수·정희	정운수, 편정희	여자신학생/대학생
13	유민화	유민화, 신종식	신대원생/대학생
14	김영순·이선인	이선인과 제자들	박사과정 대학원생
15	김성태·윤선향	김성태, 윤선향	파이프오르간(음악)전공자 또는 신학생
16	성은	김기호, 김인숙	대학생, 군필/군인가족
17	연동 권사회	연동 권사회	신대원생(목회 지망생)
18	연동 안수집사회	연동 안수집사회	대학생
19	건실	김제실, 김웅선	
20	방정현	방영민, 방영호	
21	이지연	김장렬, 최은주	장신대 신대원 2명
22	문정	장문식, 오정애	대학생(대학, 대학원)
23	김병웅·박은화	김병웅, 박은화 가족	
24	그루터기	여명선 그루터기	
25	박순자	박순자	
26	지소라	김윤환 가족	
27	신우	강윤희 가족	
28	윤영	안윤성, 한영신 가족	

선발기준

1. 성실한 주일성수 및 연동교회 등록하여 출석 중인 학생
2.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 시 우대
3. 학교 성적 : 고등학생 평균 70점 이상, 대학생 평균 3.0 이상 우대
4. 가정환경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장학위원회에서
다운로드)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신청학생의 이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신입생은 합격증)
3. 자기 소개서
4. 추천서 1부 : 담당 교역자 또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또는 각 구역 구역장
5. 신청학생 부모의 연간 건강 보험료 납부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부모가 맞벌인 경우는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필요)
* 신청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등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 접수가 어려울 시에는 그 사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무처에 접수 가능함)
* 모든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관인이 있어야 유효 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전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김원장 안수집사전화 010-4307-3021, 이메일 vivawj@naver.com)

연동교회 장학위원장 강철민 장로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김유나 성도
(중등부 3학년)

저는 2025년 중등부 회장을 맡은 김유나입니다. 중등부 임원단은 회장 김유나, 부회장 안영준, 총무 윤정현, 서기 전하은, 회계 고서울 이렇게 총 5명이 중등부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중등부 임원이 되었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중등부 임원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임원친구들과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등부 겨울수련회 임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원이 되기 전에는 수련회에 가서 언니들이 진행하는 임원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재밌게 참여했는데, 이제는 제가 참여자가 아니라 진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니 막막하기도 하고, 언니들이 했던 것만큼 재미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회 2주 전부터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임원 친구들과 남아서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처음 할 때는 임원 친구들 모두 처음이라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여서 임원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게임을 할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중에서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게임들을 고르고, 순서와 게임에 필요할 준비물과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평일에 서기 전하은과 같이 임원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PPT를 만들었습니다. PPT를 만들 때도 처음이어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언니가 도와주어서 PPT를 만드는 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 PPT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대충 틀만 짜고, 주일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PPT 완성을 위주로 회의를 하였고,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리허설을 진행하며 게임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수련회 날이 기대도 되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모두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의 손길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잘 만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을 주신 언니, 오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임원 프로그램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임원을 했던 언니, 오빠들이 임원 활동을 너무 잘 해주어서 올해 제가 임원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 것처럼 뭔가 답답했던 마음도 내려가고 걱정도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서 임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임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중등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중등부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 청년부를 섬기겠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청년부 회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고백이 제 첫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역할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다가오며 기도 속에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면 부족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청년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제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성 성도
(비청년부)

총회에서 회장이 되고 나서, 연동교회에 처음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야구선수를 꿈꾸며 학창 시절을 야구부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연동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정도로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야구부 활동을 계속하며 대학교 졸업 후 청년부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만남이 어려워 보여 3부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부 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 청년부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 덕분에 청년부에 적응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 들어와 학창 시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청년의 때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청년부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저도 그 친구들처럼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4년 동안 셀리더로 섬기면서 많은 사랑을 준 셀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2024년 회장단으로 섬길 때도 도움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회장단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성실히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섬기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청년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이성식 성도
(동작관악구역)

안녕하세요. 저는 부용찬양대 테너 솔리스트 이성식 성도입니다.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2기생으로 입학해 공부했으며, 이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6년 넘게 유학 생활을 마친 뒤 귀국해 성악가로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경 부용찬양대 베이스 솔리스트이자 함께 활동했던 이마에스트리의 신금호 선생님의 소개로 부용찬양대에서 약 2년간 은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향인 전라북도 군산으로 내려가 군산 신흥교회 지휘자로 10년 넘게 교회를 섬겼으며, 전주의 호남오페라단 상근 단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오페라와 콘서트에서 주역으로 왕성한 성악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한 음악학교와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오엠예술기획'이라는 예술기획사를 설립하여 이탈리아 음악가들을 한국에 초청해 연주와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 음악가들을 이탈리아로 데려가 공연과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국의 54인조 학생 오케스트라와 이탈리아 벤티볼로 학생 오케스트라의 협업으로 진행된 마스터클래스 및 이탈리아 6개 도시 순회공연이었습니다. 이는 제게 있어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돼 가던 사업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매출은 끊겼으며, 특히 이탈리아 아말피의 라벨로 뮤직 페스티벌에서 예정되었던 60인조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 취소로 큰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날마다 불확실한 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흔히 '노가다'로 불리는 고된 육체노동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저의 정체성과 자존감까지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여파로 찬양대 찬양마저 멈춰 지휘봉을 들 수 없었지만 매주일 봉헌 찬양을 자처하며, 찬양대가 다시 예배 찬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찬양은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저를 다시 세워 주시고, 상처 입고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군산 신흥교회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부용찬양대 방영호 지휘자님의 제안으로 다시 연동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현재는 생계를 위해 작은 커피 공장을 운영하며 경쟁적인 경제 환경 속 낯선 도전을 이어가는 중이지만, 부용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제게 부어 주실 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연동교회를 섬기며

내가 다시 연동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5년이나 되었다. 내가 다시 우리 연동교회에 부름을 받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30여 년 전 처음 부목사로 부임할 때만큼이나 감격스러웠고 자랑스러웠다. 처음 연동교회에 부름 받은 것은 1988년도 1월이었다. 당시 교단 총회본부 전도부에서 국제선교 담당 간사로 일하고 있다가 김형태 목사님이 부총회장이 되어서 결재를 받은 하다가 김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연동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그때 역시 나는 한국 대표적 교회인 연동교회 부목사로 부름 받고 연동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고 실제로 김형태 목사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워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연동교회를 떠난 지 30여 년 만에 다시 연동교회로 부름받아 연동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입어 벌써 5년이 되었다. 그래서 요즈음 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은 교회에 오는 일이다.



이만규 지도목사
(구리남양주양평
구역)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연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다. 한국의 대표적 교회로 지난 130여 년 동안 실제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그 대표적 교회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앞에 연동교회 가족으로서의 큰 책임도 느낀다. 한국교회가 우리 연동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원하던 아니든 한국교회의 향도(嚮導)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오래되어 나이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적인 교회, 바른 판단과 정확한 가치관으로 움직여 가는 교회, 교회뿐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이다. 다른 많은 대형교회가 있지만, 단지 많은 사람이 군중처럼 모인 집단으로 치부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연동교회는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 시대와 역사의 리더들이 모인 교회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문제, 이념의 문제, 구체적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시국 현안에 대하여 연동교회가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교회가 연동교회이다. 그러므로 당회의 결정, 제직회의 결정, 성도들의 태도가 곧 한국교회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래서 명실공히 한국교회에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교회이다. 그래서 그 책임 또한 소홀할 수 없는 교회이다. 우리는 130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끌어갈 책임 역시 중다(重多)함을 기억하고 교회 지도자는 물론 성도들 역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에서나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결정이나 개인의 일상에서까지 생각과 행동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연행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해, 기도와 감사로 출발한 하이청년부

| 풋살 친목, 동승교회와 연합풋살



11월 24일(주일)과 12월 1일(주일) 저녁에 연동교회 청년부가 서경대학교 풋살파크에 모여 풋살로 친교했다. 특별히 12월 1일에는 혜화동에 위치한 동승교회 청년부와의 연합해 운동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졌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 운동과 응원으로 하나되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 러브릿지 온(溫)



2024년의 마지막 러브릿지 온이 진행되었다. 11월 30일(토), 12월 28일(토)에 많은 청년부원이 참여하여 창신동 쪽방촌에 도시락과 간단한 생필품을 전하였다. 1년 동안 러브릿지 온에 많은 온기를 더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연동교회가 전하는 작은 따스함이 이웃에게 무사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제직분들과 회장단 식사



12월 21일(토)에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청년부 담당 제직분들과 히청년부 회장단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의 청년부 행사들을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고 1년 동안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제직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히청년부가 기도한다.

| 김윤기 목사 파송



히청년부를 위해 2년간 열심히 사역해주신 김윤기 목사가 12월 29일(주일)을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마쳤다. 12월 28일(토) 저녁에는 가나의 집 아가페홀에 김윤기 목사 파송을 위한 청년부 행사로 다 함께 모였다. 청년부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과 김윤기 목사가 청년부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듣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12월 29일(주일)에는 고별설교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기 목사님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 첫 교무회의 및 2025 회장단과 위임목사와의 인사

2025년 히청년부를 섬겨주실 제직분들과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교무회의를 진행하며 한 해를 기도와 감사로 섬기고자 하는 다짐을 나누었다. 또한, 위임목사와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로서의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히청년부를 위해 동역자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중보해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손길들에 감사드린다.



| 2025년 셀 이름 작명 컨테스트

올해 새롭게 편성된 12개의 셀들이 2025년 셀 이름 작명 컨테스트에 참여하였다. 다나와셀, 소확행셀, 스무셀, 여호와라파: 돈독 셀, 제네시스셀, 프로미셀, 형형색셀, 홍삼캔디셀, 하소연셀, 하두리셀, 하소서셀, 홀리물리셀과 같이 다양한 이름들이 소개되었다. 교무회의의 투표를 통해 1등은 제네시스셀, 2등은 스무셀, 3등은 프로미셀로 결정되었으며, 수상 셀들에게는 소정의 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등: 제네시스셀



2등: 스무셀



3등: 프로미셀

겨울의 향기 ‘백향목’



‘연못골’로부터 칼럼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로 글을 써나가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 그러던 중 향수에 관심이 많은 우리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향기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수는 식물에서 향을 추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전에는 동물에게서도 향을 채취했지만, 현재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합성 원료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앞으로 우리는 백향목부터 시작해 몰약까지, 성경에 나오는 향기들을 살펴보고 계절에 맞는 향수를 추천해드리려고 한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나온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무는 백향목(Cedar)일 것이다.

구약에서 70여 회나 언급된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목재이다.

백향목은 수피에 상처가 나면 진액을 내는데 매우 향기롭다. 이 진액에는 방부제와 방충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고대부터 귀한 취급을 받았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강건함,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백향목을 사랑했다.

겨울에는 어떤 향이 어울릴까? 겨울은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된다. 또한 외투가 점점 두꺼워지고 실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이 더 늘어나는 계절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향이나, 달달하고 목직한 향들을 찾게 된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향은 우디(Woody) 향이 대표적이다. 우디 향은 주로 나무에서 느껴지는 향을 말한다. 그리고 우디



김한 목사

향은 주로 향수에서 베이스 노트에 많이 쓰이는 향이다.

향수는 세 가지의 노트로 나눌 수 있는데, 탑 노트와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이다. 탑 노트는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나는 향이고, 미들 노트는 중간에 나는 향, 베이스 노트는 피부에 남아 있는 잔향을 말한다. 우디를 베이스 노트에 쓰는 이유는 돋보이는 향은 아니지만 은은하고 다른 향들과 조화를 이루기 쉽기 때문이다. 마치 나무 한 그루는 화려하지 않지만 숲을 이뤘을 때에 장엄한 느낌을 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백향목의 향이 들어 있는 향수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향수가 있지만,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향기 위주로 선정해보았다.

딤**의 '탐다오'는 샌달우드와 백향목, 사이프러스 등을 메인으로 하여 깊고 우아한 우디 향이 나타난다. 탐다오는 특히 고요한 숲속에서 느껴지는 차분한 우디 향을 연상시키며, 은은하고 부드럽게 피부에 남아 오랜 시간 안정감을 준다.

툼**의 '상탈 블러쉬'는 백향목과 샌달우드, 향신료 노트가 어우러져 따뜻한 우디 향을 드러낸다. 이 향수는 부드럽고 크림미한 텍스처를 느끼게 하며, 미묘한 향신료의 터치가 더해져 고급스러운 따뜻함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코트를 입고 외출할 때 사용할 경우, 잔잔하면서도 풍성한 잔향이 감싸는 느낌을 준다.

르**의 '상탈33'은 시더우드와 샌달우드, 가죽 노트가 조화를 이루며 스모키하고 중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향이다. 상탈33은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향수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린다.

향수는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체취에 따라 향기가 다르게 발향된다. 예를 들어,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향이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무향의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 후 향수를 뿌리면 발향과 지속력이 길어진다. 또한 시향지에서 맡아보는 향기와 피부에 뿌렸을 때의 향기는 다르기 때문에 시향지뿐만 아니라, 피부에 꼭 뿌려서 잔향까지 맡아봐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향기를 중심으로 겨울에 어울리는 백향목이 들어간 향수를 추천해보았다. 이 추운 겨울, 백향목의 따뜻하고 깊은 향은 단순한 우디 향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느끼게 한다. 이번 겨울에는 백향목 향기와 함께 깊어져 가는 겨울을 보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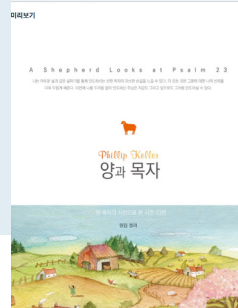


*올 한 해 동안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6회에 걸쳐 김한 목사께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양과 목자

한 목자의 시선으로 본 시편 23편 | 출간 40주년 기념판 |

필립 켈러 저자(글) · 김만풍 번역 / 생명의말씀사 / 2018



『양과 목자』 시편 23편을 통해 만나는 선한 목자의 은혜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의 삶을 탐구하다!

『양과 목자』의 저자 필립 켈러 목사는 캐나다에서 양치기와 농업 경험을 쌓은 후,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양을 키우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후 기독교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특히, 시편 23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양과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양치기의 시각에서 풀어내며 많은 크리스천에게 신앙적 통찰과 감동을 준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양과 목자』는 시편 23편을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한 현대의 고전으로, 출간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은 책입니다. 실제 목자로 살아온 저자 필립 켈러는 자신의 경험과 신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생생히 풀어냅니다. 이 책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실제 목자의 삶과 연결해 본 적이 있나요? 필립 켈러는 목자이자 농업 토양학자로서의 삶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시편 23편이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묵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깊은 영적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주요 내용

『양과 목자』는 시편 23편의 각 구절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다윗이 노래한 말씀과 목자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자는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실제적이고 친밀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심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인생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의 글

『양과 목자』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이해할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며, 시편 23편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 임재철 기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연동교회

온제직 간친회

2025년 1월 23일



대 상	은퇴자를 포함한 모든 제직
일 시	2025년 1월 23일 (목) 오후 5시 30분
장 소	본당 / 베들레헴 예배실
문 의	민흥기 안수집사(010-3374-9350)

두관석, 이선아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



'2024년, Christmas!!'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24년 12월 18일(수) '우리의 희망과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로 이 땅에 살롬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세 개의 부서에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들빛유치원 아이들과, 아다수교회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랑의 바이올린 중고등부가 준비한 공연을 통하여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대신하여 드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듯 우리도 준비한 찬양을 하며 주님 나신 밤을 축하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의 집 아이들은 80% 정도가 힌두교, 이슬람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종교를 뛰어넘는 살롬을 이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보길 소망합니다.

발리, 숄바교회 건축 이야기



아다수 들꽃 예배당 건축

한국 교회의 밀알처럼 헌신하는 익명의 권사님의 후원으로 시작된 발리 교회, 6월에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2월 18일(수) 예배당과 사무실, 주차장 등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SENH GBI LAIPORI



숨바 라이포리 교회 건축 중

9월 말부터 시작된 숨바섬의 라이포리 교회, 122명의 교우가 힘을 합하여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갑니다. 포항중앙교회 권사님의 후원으로 시작된 숨바섬의 교회 건축은 라이포리 교우들의 오랜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해변에 자리 잡은 라이포리 교회는 건축비 절약을 위해서 해변과 강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고 교우들이 시간을 내어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종강과 닭 한 마리 사역



1학년 주간



주방 모습



씻거지



주방 겸 식당

8월에 시작된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신학기에는 1학년 주간 27명, 야간 24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좁은 강의실에 27명이 내뿜는 숨과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고장 난 에어컨은 몇 번이고 강의실을 뒤흔쳐나오고 싶게 합니다. 무던히 더운 열대의 여름에 수고한 1학년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학교는 공사 중입니다. 채플실 한쪽에 마련된 주방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합니다. 앉을 곳도 없는 곳에서 땀에 범벅이 된 채 이곳저곳에 앉거나 서서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미래 주의 종들, 채소 반찬에 고추장을 덜어 한 끼를 밀어 넣습니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몸과 깊은 영성을 소유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젊은 주의 종들에게 단백질 공급을 위해 닭 한 마리 사역 진행 중입니다.

월 1만 원 후원하시면, 신학생 1명에게 닭 한 마리를 공급합니다(110 118 428 065 신한은행/ 두관석).

/ 정리: 박동진 기자

2025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국어예배반의 비전과 사역 방향



추수감사주일 중국어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적고 있는 성도들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중국어예배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표어 아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어예배반은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초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 활동과 친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일대일 양육을 통해 기존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단순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신앙의 본질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신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과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성경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한 성경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공동체가 신앙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박점분 목사, 경리: 박동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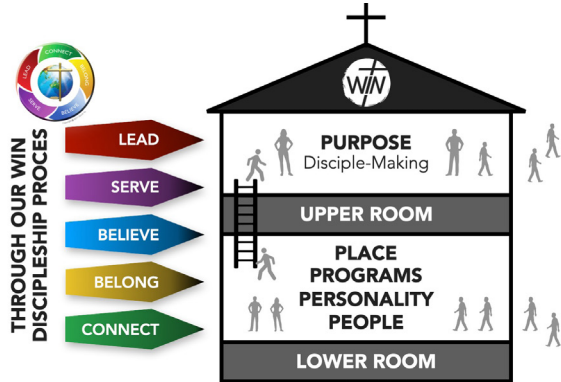
Facebook +Add to story:박점분

WIN 제자 훈련

2024년 마무리하며, 2025년 새로운 도약

2024년 마지막 분기를 마무리하며, 교회는 10월 20일(주일) WIN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말에 종료되며, 크리스마스 와 새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해 3주간의 휴식이 포함됩니다.

제자 훈련에서는 I Connect, I Belong, I Believe, I Serve의 네 가지 시리즈가 제공되며, 마지막 과정인 I Lead는 올해 첫 분기



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I Connect 단계는 새로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분을 쌓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I Belong 단계에서는 훈련생들을 제자화하며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와 지식을 성장시키도록 격려합니다 (베드로후서 3:18 참조). 이후 이들은 소그룹인 각자의 코이노니아로 안내됩니다. I Believe 단계에서는 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대해 더 깊이 소개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I Serve단계에서는 훈련생들이 예수님처럼 봉사할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모델링합니다.

현재 제자 훈련의 새로운 점이 고려되는 부분은 I Connect와 I Belong 과정의 진행자가 제자 훈련 과정을 졸업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WIN 조직의 목표에 충실하게, WIN-Seoul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 활동의 일환으로, 신실하고 자격 있는 회원들에게 멘토링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이며, 추가적인 지식은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변화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2025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I Connect와 I Belong 시리즈 졸업생들은 2025년 1월 19일(수)에 시상식이 있을 것이고, I Believe와 I Serve 시리즈의 졸업식은 2025년 1월 26일(주일)에 진행됩니다. 시상식과 졸업식은 교회가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Facebook +Add to story : Abel Raby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를 만들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복음의 명령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 Abel Raby 목사, 번역:이학주 집사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친구를 도와요(막2:5)	말씀집중주일, 새친구(박수아) 환영
	17	하나님, 감사해요(신 26:11)	추수감사주일, 말씀활동: 감사 찾기 & 감사 열매 붙이기
	24	반짝반짝 빛으로 살아요(막5:16)	성탄발표곡 배우기(깊은 어둠이 내린 밤/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12	1	꼭~ 꼭 기다려요(눅1:31)	대림절 1주, 12월 말씀 송 & 성탄 발표곡 배우기
	8	마리아처럼 기다려요(눅1:30~32)	대림절 2주, 12월 생일자 축하시간, 성탄 축하 발표 연습
	15	기쁜 소식이 있어요(눅 2:14)	대림절 3주, 성탄 축하 발표 연습
	22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요(마2:11)	대림절 4주 및 성탄절(25일), 새친구(정솔, 정해솔) 환영, 성탄 축하 발표, 성탄절 예배(25일)
	29	키가 쑥~ 지혜가 쑥~(눅2:52)	수로 및 진급 예배, 새친구(정희우) 환영
1	5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창1:31)	신년 주일 & 성례주일(성찬식), 반 소개 및 인사, 1월 말씀 송 배우기

/ 박윤신 부감



추수감사주일 활동 : 감사 찾기 & 감사 열매 붙이기



경원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새친구들 환영
(시계 방향: 박수아, 정해솔, 정희우, 정솔)



수로 및 진급식(형님반으로 유아부로)



새해 첫 성찬식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서로 도와주는 친구(막2:5)	공과활동
	17	감사하는 제자(신26:11)	감사나무 만들기, 과일꼬지 만들기
	24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마5:16)	반별 말씀암송
12	1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눅2:30~32)	대림절 말씀 리스 만들기
	8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눅1:30~32)	대림절 트리 꾸미기
	15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눅2:14)	온세대 성탄 축하예배 연습
	22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마2:11)	온세대 성탄 축하예배 연습
	29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눅2:52)	줄업식, 수료예배
1	5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창1:31)	환영예배(친구 인사, 선생님 인사)

/ 정윤정 부장



감사나무 만들기



대근육활동



출업, 진급 예배



온세대 성탄발표 연습



성탄 말씀 리스만들기

<유치부>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금홀한 마음을 가진 제자(막 8:6)	9일(토) 강북협의회발표회
	17	감사하는 제자(신 26:11)	감사나무 만들기
	24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마 5:16)	23일(토) 교사대학 오전 10시~12시
12	1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눅 2:30~32)	생일파티, 발표회 연습
	8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제자(눅 1:30~32)	성탄 축하 발표 연습
	15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눅 2:14)	성탄 축하 발표 연습
	22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마 2:11)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29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눅 2:52)	말씀암송대회
1	5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창 1:31a)	진급 어린이 환영

/ 최정미 교사



동생들이 어서와 환영해^^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해요



온세대 성탄예배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진급과 졸업을 축하해요~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서로 도와주는 제자(막 8:6)	반별 공과활동
	17	감사하는 제자-추수감사주일(신 26:11)	반별 공과활동
	24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마 5:16)	2부 전체활동
12	1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눅 2:30~32)	대림절 1, 성탄 발표 연습, 12월 생일잔치
	8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눅 1:31)	대림절 2, 성탄 발표 연습
	15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눅 2:14)	대림절 3, 성탄 발표 연습, 교사 월례회
	22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마 2:11)	대림절 4, 성탄 발표 연습,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발표회
	29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제자(눅 2:52)	송년주일, 반별 공과활동
1	5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창 1:31a)	2025년 새학기 시작

/ 성창원 교사



12월 생일잔치



온세대 예배 발표 연습



온세대 예배 발표



유년부 찬양대 성탄 축하 음악예배 참여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지붕 뚫고 예수님에게로(막2:5)	공과공부
	17	이스라엘의 감사잔치(신26:11)	추수감사주일, 생일자 축하, 떡볶이 파티
	24	착한 행실로 빛나는 세상(마5:16)	달란트잔치
12	1	싱어송라이터 시므온(눅2:30-32)	대림절1, 공과공부
	8	마리아의 선택은?(눅1:31)	대림절2, 성탄 축하 예배 음원 녹음
	15	찬양 Talk! Talk!(눅2:14)	대림절3, 성탄 축하 예배 연습
	22	기쁨 여행 시리즈(마2:11)	대림절4,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참여
	29	예수님의 성장일기(눅2:52)	송년주일, 수료예배 및 졸업식

/ 양진실 기자



생일자 축하 후 떡볶이 파티



기다리던 달란트 잔치예요!



성탄 축하 예배 녹음하러 왔어요^^



성탄 축하 예배 연습해요



성탄 축하 예배 공연했어요



6학년 수료자 단체사진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AWANA 2학기 “노인을 존경하라”(레 19:3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종강 올림픽 회의
	17	AWANA 2학기 “거룩한 제물”(레 22:2)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교사 전체 모임(하반기 평가회)
	24	AWANA 2학기 “인증 마크”(레 19:37)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교사대학(11/23), 열림홀 확장 공사
12	1	AWANA 2학기 종강 학부모 초청, 미니올림픽	Game(학생, 학부모 참여) / AWANA 시상식 / 간식 시간, 열림홀 마감 공사
	8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단체 게임, 특별활동 : 불록 트리 만들기
	15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어머니의 하나님”(룻 1:16)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22	오후 성탄주일 발표회로 휴무	
	29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특별 영화상영 : “그해 크리스마스에는”(팝콘 제공)
1	5	겨울 어린이부(AWANA 방학) “룻의 선택”(룻 1:16)	찬양, 말씀 / 단체 게임, 열림홀 정리, 신년 교사 모임

/ 윤종훈 부장



찬양운동



종강 기념촬영



미니올림픽



불록트리 만들기



단체 게임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막 2:1-12)	반별모임 및 공과활동
	17	감사의 세 가지 차원(신 26:1-11)	추수감사주일 활동
	24	세상의 빛(마 5:14-16)	감사활동 시상, 생명 교육
12	1	예수님을 기다리며(눅 2:25-38)	대림절1, 조인근 선생님 파송, 중등부 학생총회
	8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눅 1:30-38)	대림절2, 12월 생일 축하, 세례입교 교육 1주차
	15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눅 2:8-20)	대림절3, 성탄 트리 만들기 활동, 세례입교 교육 2주차
	22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마 2:1-12)	대림절4, 성탄주일, 발표회 연습
	29	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너희들!(눅 2:52)	중3 졸업식 및 수료식, 각종 시상(대림절 활동, 개근, 전도), 세례입교 교육 3주차
1	5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 (창 1:27-31)	성례주일(성찬식, 입교자 축하), 신입생 환영회, 교사 소개 및 반별 첫 모임

/ 권광호 전도사



예배위원 시작 전 기도 모임



전도사님이 되신 조인근 선생님 파송



2025년 신입원 학생들의 초등부 방문(진급 안내)



성탄 트리 만들기 활동



성탄 발표회 연습



반별 회식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11	10	여호와와 빛 가운데 걸으리라(사2:1~5)	고3 격려 예배, 유년부 응원 및 그림편지 전달
	17	진정한 순종(삼상15:10~23)	또래예배(학년별 소그룹 예배)
	24	세상의 빛으로(마 5:14-16)	기독교 가치관 교육
12	1	기다림 만렘(눅 2:25-38)	예수님께 드리는 4주간의 고백과 감사(대림절편지 1주차) 자치회 정기총회 (회장: 강하늘, 부회장:이주은, 총무:윤재윤)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워십연습
	8	일상의 작은 순종이 만드는 기적(눅1:26~28)	예수님께 드리는 4주간의 고백과 감사(대림절편지 2주차)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워십연습
	15	미공개 신곡 발표(눅2:8~20)	예수님께 드리는 4주간의 고백과 감사(대림절편지 3주차) 사랑의 5가지 언어,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워십연습, 12월 교사월례회
	22	안전한 거짓말과 위험한 진실 사이에서 (마2:1~12)	예수님께 드리는 4주간의 고백과 감사(대림절편지 4주차) 아비투스, 고3 캠퍼스이단 교육,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워십 고3 MT(20~21일, 가평)
	29	3대 몇?(눅2:52)	M.O.C.A(Messenger of Christ Award)-편지 전달식, 감정상태 체크하기, 학년별 감사/기도제목 발표
1	5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창 1:27-31)	성례주일, 신입생 환영, 선생님 소개, 1월 생일자 축하

/ 이승원 부감



기독교 가치관 교육



또래예배



온세대성탄축하예배



M.O.C.A(Messenger of Christ Award)



고3 격려 예배



고3 MT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청년부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강욱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에 석사·박사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기계공학연구원 이강욱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한 분야인 기계공학이 감사하게도 저와 잘 맞아서 전공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좀 더 공부하며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학부 수준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전공 수업을 수강함과 동시에 본인이 직접 찾은 연구 주제에 관해 스스로 공부하고 지도 교수님의 연구 지도를 받아 가며 공부와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논문으로 교수님들께 학위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동안 학회에 참석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며, 각종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서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 즉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기에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고, 수주한 연구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실험실 안전 관리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원 생활은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공부나 연구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연구는 기존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 시 생기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무와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진 '소프트 로봇 (soft robot)'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 자체가 학계에 보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할 내용이 무궁무진하고, 풍

선이나 장난감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 학계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 흥미롭게 연구하며 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후의 진로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 취직하여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이어 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졸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향후 진로에 대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기업에서의 연구와 업무를 경험하고 싶어 관련 기업 연구소로의 취직을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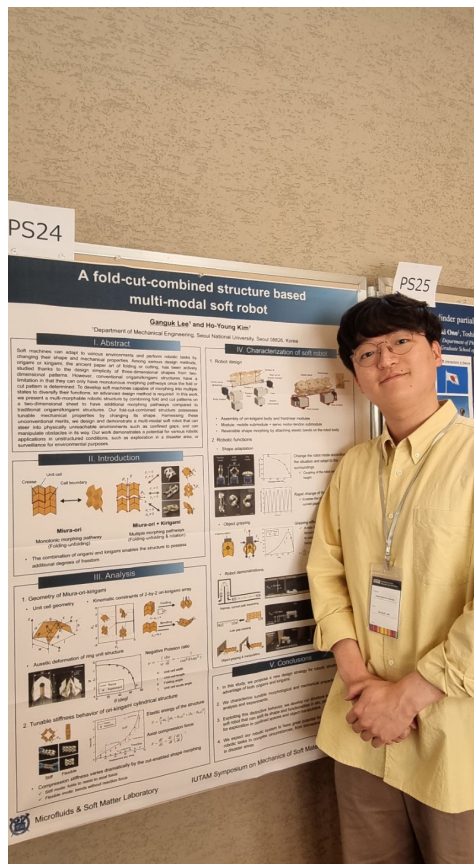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대학원 학위 과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위 기간 동안 맺는 모든 대인 관계와 새로운 주제를 잡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고, 연구가 진행이 안 될 때 돌파구가 떠오르지 않는데 심지어 지도 교수님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동안 좌절감이 들다가도, 조금만 연구와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쉽게 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제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하며 내 능력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시선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목표하고 있는 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후배님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일하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공계 분야 대학원 진학 관련하여 고민 중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2928-929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및 사진: 송재호 기자





기경록 성도와 어머니 문명자 성도(중계구역)

믿음의 성장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3일(주일) 새신자로 등록한 어머니 문명자 성도의 인도로 한 주 뒤에 등록한 40대 초반의 아들 기경록 성도를 교인분들께 소개합니다. / 진상협 기자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독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악몽을 많이 꾸던 아이였습니다. 악몽을 꾸면 아버지는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시며 '예수님이 지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극장과 정미소를 하던 부잣집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옛날에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던 집안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불공을 드리거나 굿을 하던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삶의 대부분을 무교 90%, 불교 10%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신을 찾으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믿음만 가진 채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치며 고민만 가득하던 차에, 연동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어머니의 전도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존경하는 권사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믿음을 키울수 있었고 매일 감사기도를 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주변에 교인들이 여럿 계셔서 믿음의 고민과 종교적인 문제로 궁금증을 해소하며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씩 유튜브로 CBS 채널을 보거나 간증 영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간증 영상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스토리를 갖고 교회에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서 항상 좋은 말씀과 축복으로 서로를 감싸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거룩함에 항상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또한 감사합니다. 교인분들의 상냥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교회를 다닌 지 이제 1년뿐이라 인간의 성장으로 치면 아직은 아이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며 울고 보채는 갓난 아이의 믿음에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해? 그만 둘까?’ 하는 미운 5살의 믿음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 믿음의 사춘기가 오면 교회를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의 갱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때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 다잡고 성실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큰 힘을 믿기에 그 힘은 모두에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 앞가림도 부족하여 많은 이를 위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인연이 있었던 친구, 목사님, 교인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위해 매일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더 올바르게 나은 길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기에 앞으로는 연동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기술직렬에 근무 중입니다. 때론 어려울 때도 피곤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일이므로 보람을 느끼며,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의 소명의식을 갖고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부족함이 많고 배울 것도 많아 무언가를 더하려고 무리하진 않고 우선은 기본부터 충실하게 매주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경록아, 너, 나 만나라고 여기 온 거야.”

지난 인사 이동 때, 정년을 몇 년 앞둔 그 부처에서 가장 큰 어른이신 상급자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처음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선 모든 만남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계획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인분들을, 여기 연동교회에 주님의 선택받은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은퇴, 추대 예식



12월 8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오후예배시간에 2024년 은퇴, 추대예식이 진행되었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569장, 김대진 장로의 기도, 박문숙 권사의 성경봉독(요10:9), 게일찬양대의 찬양 후 김주용 위임목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서 은퇴, 추대자 14명을 소개한 후 은퇴, 추대패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증정했다. 최기식 은퇴장로의 은퇴인사 후 진화신 집사(연못골찬양대 지휘자)의 축가가 이어졌다. 찬송가 440장을 부른 후 이성희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 고현수, 김중은, 이지원 기자

〈은퇴 및 추대자〉 임직일(시무년수)순

장로 은퇴: 최기식, 구자학, 이수진, 최영의

공로안수집사 추대: 박세현

협동안수집사 은퇴: 김선철, 채수원

공로권사 추대: 장연화, 고광숙, 심혜숙,

김종순, 서희자, 전은화

권사 은퇴: 서신옥



<장로 은퇴 소감>



최기식 은퇴장로(행당금호구역):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들과 어르신 선배님들께서 130년 동안 아름답게 가꾸어 오신 우리 연동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 한 연동의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직분자로 세워 주셔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자학 은퇴장로(길음구역): 빛진 자. 2010년 이명 아래 한결 같은 교회의 사랑, 수없이 마주 잡아 주신 성도들의 따뜻한 손, 그렇게 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직 감사뿐입니다. 70이어도 젊게 느껴지는 게 익숙지 않은 은퇴, 그러나 여전히 빛진 자입니다. 전도와 구제. 그 명제에 움츠러드는 초라함, 과분한 은퇴예식처럼 주님 맞아주시는 영광스러운 날 바라보며 더욱 심기일전해 봅니다. 영성훈련부 참 보람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회, 토요 장로기도회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실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 그 발걸음 재촉해 봅니다.



이수진 은퇴장로(동대문구역):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을 장로로 부르시고 일하게 하셨지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고 은퇴하게 되었음에 애타려 회개합니다.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최영익 은퇴장로(분당구역): 시무 기간 5년, 최소한의 시간이었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결코 짧다고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에 믿음도 삶의 모습도 부족함이 너무 많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자 하면서도 때로는 불화의 소리도 내고 그저 말만 앞세운 때도 있었기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제게 무거운 짐이 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을 벗어 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는 동안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정말 세상의 것들도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게 되기를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안수집사 추대 소감>



박세현 공로안수집사(개포수서구역): 그동안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더욱 섬기고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협동안수집사 은퇴 소감>



채수원 은퇴안수집사(동대문구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커다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칠십 년 세월을 넘겨 큰 대과 없이 신앙인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은퇴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본이 되지 못하였던 것과 열심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식구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강건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로권사 추대 소감>



장연화 공로권사(용인구역): 시어머님이신 고 정성애 권사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연동교회를 위해 권사로 17년 동안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을 맡기면 무조건 '예'하고 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문제로 힘들었던 2023년을 강건하게 견디게 하셔서 은퇴의 날을 허락하심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성희 원로목사님의 '은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실히 잘 섬기도록 인도하소서.



고광숙 공로권사(동송구역):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권사의 직분을 받고 어언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예배부, 찬양대 등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과분하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심세숙 공로권사(서초방배구역):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동교회를 섬기며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연동교회의 미래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로권사(영등포구로구역): 은퇴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받고, 두려움과 작은 설렘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은퇴하며 되돌아보니 걸모습만 분주했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족함에도 기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함께할 모든 신앙의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전은화 공로권사(마포용산구역):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연동의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선배님들 따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묵묵히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 은퇴 소감〉



서신옥 은퇴권사(신내구역):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종로에 아름답고 분위기 좋고 양상블도 있는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길래 나도 가볼까 하는 생각에 연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예배, 여전도회, 양상블이 있는 부용찬양대에서 귀하게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예배를 드리면서 바쁜 삶의 시간에 쫓기면서 마지막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생은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연동교회에 부임 당시, 어떠셨나요?

2년 전에 청년부 사역 담당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연동교회에 계신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에 대해 나눠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청년들을 새롭게 만나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인 “이색(異色) 캠퍼스 심방”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하이택시(Hi-Taxi) 심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방을 하며 청년들과 가까워지고 추억을 만들었던 순간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늘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최고의 듀오로 좋은 팀워크를 보여준 박주안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주용 위임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던 박요한 선임목사님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연동교회를 떠나며 그동안의 소회를 포함해 연동교인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늘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연동 청년 페스타 130’ 행사를 비롯해 연동교회의 130번째 생일에 동참했던 것도 저에게는 귀한 추억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소 길지 않은 시간을 연동교회에서 함께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남아 있지만, 늘 잊지 않고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 제자양육을 이어온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연동을 더욱 빛내고, 주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담당하게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동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박현미 편집장

*김윤기 목사님은 12월 29일(주일) 2년 간의 연동교회 목회를 마치고 소망교회(강남구 소재) 부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성희 원로목사, 제30회 한남인돈문화상 수상

12월 3일(화) 이성희 원로목사가 한남대학교 정성균선교관에서 한남인돈문화상을 수상했다. 이성희 원로목사는 목회자와 교회행정가로서 그동안 한국교회 및 기독교연합기관의 발전에 헌신하였다. 또한, 기독교 사회활동가로서 한민족복지재단 등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교회행정, 리더십 그리고 영성 분야 저서를 40여 권 넘게 집필하였고, CBS를 비롯한 각종 기독교언론기관의 후원과 운영을 통해서 기독교문화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은 한국교회와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성희 원로목사를 제30회 한남인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 박동진 기자



세계선교위원회의 선교지 심사



11월 16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11월 정기 회의를 갖고 후원지 신규, 연장, 조정 등의 심사를 가졌다. 2025년부터는 새롭게 인도네시아의 공성일 선교사를 협력선교사로 지정하였고,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교, 베트남선교회, 목회자 포럼을 2025년간 후원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연동교회는 2025년 1월 현재 19개국의 20개 선교사 가정 그리고 8개 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세상 끝까지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부 오요셉 청년이 함께하였다. 오요셉 청년은 장신대 학생으로 견습선교사를 지원하여 1년간 선교에 대한 배움과 경험을 갖출 예정으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김태환 선교사 사역지에 1월 파송 예정이다. 금년도 현지 활동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계선교위원회에서 1년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년에는 3년째 진행되는 청년부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단기선교에 세계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최근 완공된 사랑의 선교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지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선교 사역지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일정 규모의 사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윤중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17일(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러졌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옴의 감사’(욥42:10-11, 빌2:12) 제목의 설교에서 감사의 가치는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예배 후 성도들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나오미 농촌봉사’ 때 추수한 쌀, 그리고 빵과 떡을 선물로 받으며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다. 특별히 3부 예배시간에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이웃사랑 나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13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특별 봉헌 수입의 일부를 교회 밖 이웃돕기에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월드비전에 전달되었고, 이는 생계·의료·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아동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다. 월드비전은 1950년에 밥 피어스 선교사와 한경직 목사가 한국 전쟁고아와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고자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기구이며, 1953년에 한국월드비전이 시작될 당시 연동교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던 뜻깊은 인연도 가지고 있다. 이 날 교회마당에서는 우간다 어린이를 위한 월드비전 개인후원자도 모집하였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후원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나누어 우간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고, 후원하는 어린



월드비전 후원금 전달

이를 위해 기도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연동교회 교인들, 특히 후원에 참여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국내와 우간다로 전해지며 모두에게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다.

/ 양진실 기자



추수감사주일 선물

청소년주일학교 교사대학



11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청소년주일학교 교사대학이 있었다. 교사대학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2부는 해피, 드림, 비전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2025년 부서별 실천 과제를 논의한 뒤, 다시 본당에 모여 각 팀별 논의한 사역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이전까지의 교사대학이 강의를 듣고 부서별로 모임을 갖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교사대학은 각 부서와 팀별로 2025년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참여 방법, 홍보 등의 방안을 발표, 논의하며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앞으로도 주일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함께 이에 답해주고 도움을 주는 교회와 주일학교 본부를 기대해본다. / 박윤신 기자

성경통신부 수료예배



11월 24일(주일) 오후예배는 평신도학교 교장인 구자학 장로의 사회로 성경통신부 수료식을 겸해 예배를 드렸다. 성경통신부 부감인 원영숙 권사의 기도와 교무위원 박채순 집사의 마태복음 4:1~11 성경봉독에 이어,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한빛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말씀 후에 김현정 집사가 성경통신부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시상까지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2024년 수료자는 남자 59명, 여자 137명으로 총 196명이며, 한가족 수료는 총 5가족이었다. 12년 수료한 윤희 권사와 6년 수료한 김희경 집사가 대표하여 김주용 위임목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 진상협 기자

종로5가역 성탄트리 점등식



11월 26일(화), 27일(수) 예배부(부장 박은화 장로) 미화장식팀(팀장 이금숙 권사)과 직원들이 함께 본당과 종로5가 지하철역에 성탄트리 장식을 했다. 27일(수) 오후 5시 30분 선교부(부장 이수진 장로)에서 주관한 종로5가역 성탄트리 점등예배가 역사에서 있었다. 위임목사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 우리와 함께(마 1:23)” 제목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등식을 가진 후 찬양선교단 인도로 캐럴을 부르고 마쳤다. 이날 수요기도회시간에는 교회 성탄트리 점등식도 가졌다./ 김종은 기자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옷 입히기와 캐럴인서울

11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문화 자원봉사단(회장 장연화 권사)은 종로5가역에서부터 연동교회 인근까지 60그루 나무들에 뜨개옷 입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강보영, 이수연 강사와 22명의 봉사자들은 9월 5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4시까지 2개월여 동안 베들레헴예배실에 모여 트리니팅 뜨개 작업을 해왔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거리의 나무들에 옷을 입히는 이 날엔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져 작은 바늘을 쥐고 맨손으로 일해야 하는 봉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어디보다 먼저 한국개신교의 성자인 연동교회 주변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마음으로 작업 내내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무에 입혀진 알록달록한 뜨개옷들은 연말연시 동안 인근을 따뜻하게 밝히다가 1월 22일(수) 봉사자들에 의해 철거에 들어간다.

28일(목)에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정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세리머니(제막식)를 시작으로 연동교회 본당에서 ‘캐럴인서울2024’ 공연과 더게일홀에서 복콘서트가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다. ‘캐럴인서울2024’ 공연에는 이한진밴드가 출연해 재즈콘서트를, 이어진 복콘서트에서는 박성실 에디터(매거진 허브)가 그림책 ‘행복을 전하는 편지’로 토크를 이어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행사는 예장문화법인 ‘허브’ 주최, 주관으로, 서울시와 예장 총회 문화법인의 후원과 연동교회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 박희민 편집장



크고 은밀한 꿈을 꾸게 한 ‘금식영성수련회’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3일 동안 강화수양관에서 진행된 금식영성수련회에 참여했다. 김주용 위임목사, 오한빛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윤기자 사모, 여명선 장로, 정숙희 권사, 문소희 권사, 김숙조 집사가 참여했다. 40대에 두 아들 진로문제를 믿음생활 안에서 해결 받으려고 여러 해 동안 새해가 되면 금식기도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은혜생활 누리면서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느슨해진 기도생활이 갈증날 때에 마침 금식영성수련회가 열려 참가하게 된 것이다

강독에 서서 물의 흐름을 보던 기도훈련은 수련회가 열리기 두 주 전부터 각자 주신 말씀을 읽고 반복하여 또 읽고 기도메모 숙제를 감당해야 했던 부담감의 기도훈련이었지만 예수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준비시간이었다.

김주용 위임목사, 오한빛 목사를 비롯한 참가자 5명 등 총 7명은 다섯 끼 금식 기간 동안 개회예배 때 성찬예식을 시작으로 4회의 성찬식으로 심령을 깨끗케 하였고, 아침기도 시간에 개별로 주신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외엔 침묵으로 각자 방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심을 누렸다.

40대 갑갑한 심령에 주셨던 말씀(렘33:3)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새롭게 각인시키려고 필사하게 하였고, 신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성서의 그림들이 담긴 지겨 괴더(신학자, 목회자, 화가)가 그린 성서의 그림들이 상으로 선물처럼 주어졌다. 그림 속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창18:12), 사라의 금직한 손이 자신을 어루만지며, 믿음에서 나오는 젊음으로 빛나는 사라의 얼굴을 보며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꿈을 주시는 대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침묵의 깊은 기도생활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문소희 공로권사(분당구역)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 및 전체 만남의 날



12월 1일(주일) 새가족 만남의 시간과 하반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는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새가족 전체 만남의 시간을 가져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6주간 함께한 양육자들과 앞으로 나누어갈 공동체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서로를 익히고 알아가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교구	구역	새가족 수료자 명단
1	쌍문	이낙원
	마포용산	전현정
	구리남양주양평	김민수, 김성안
2	성북1	최순기, 곽미순
	과천안산	이정희
	문화선교부	김승희
3	효제	이인남, 한이재
	충신	이순우
	서초방배	이호숙
4	길음	하지원
	동작관악	이자영
	제기청량리회기	박건호, 노가희
5	쌍성06	전영선
	중국어예배반	김가호, 소정호, 주곤요

새가족 가운데 하지원 성도는 미루기만 했던 교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양육기간 동안 성격과 취향까지 고려해주신 양육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도 중에 연동교회에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신 집사님도 계셨다. 함께 등록하신 다른 두 분의 새가족은 말씀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평소와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연동인이 되신 20명의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가족들의 감사와 기도가 이곳 연동에서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김세현 집사(새가족양육팀 총무)

CBS '잘잘법' 첫 공개 강연회 _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기술

12월 7일(토) 본당에서 오후 2시부터 8시(최초 계획 2시~6시)까지 CBS “잘 믿고 잘 사는 법(잘잘법)” 첫 공개 강연회로 김학철 목사(연세대학교 교수)의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기술>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1, 2부, Q&A 로 구성되었으며 1부와 2부 사이 휴식시간에는 성악가 '존노'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각 시간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1부 :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혼동과 어둠을 이기는 지혜 / 〈욥기〉 고통에 맞서는 고귀한 지혜

2부 : <전도서> 덧없는 삶을 즐기는 지혜 / <야고보서> 나를 찾고 단단하고 품격있는 삶을 사는 지혜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CBS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삶과 신앙에 관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지한 의미까지, 신앙에 관한 궁금증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 신학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며 함께 답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 박윤신 기자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https://www.youtube.com/@jaljalroad>

2025년 신임집사 교육

12월 8일(주일)과 15일(주일) 영성훈련부(부장 최영익 장로) 제직훈련팀(팀장 강용국 안수집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임집사 교육이 있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각 교구 담당 목사께서 일대일로 지도하였다. 2025년 신임집사는 총 36명(남자 14명, 여자 22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종은 기자

<남자> (구역은 2024년 기준임)

김남균(3. 안국평창구역) 김남우(3. 화양자양구역) 김진호3(5. 쌍성연동9구역) 김철균(5. 쌍성연동9구역) 나종원(2. 성북1구역) 백현홍(4. 삼선구역) 신근섭(1. 쌍문구역) 심예준(5. 원남구역) 유우석(2. 5,6가/주얼리구역) 은현배(1. 낙산구역) 정선용(2. 행당금호구역) 최재우(5. 쌍성연동7구역) 최준홍(5. 쌍성연동10구역) 하병진(5. 쌍성연동9구역)

<여자>

김안나(2. 쌍성연동2구역) 김은동(5. 쌍성연동7구역) 김은빈(5. 쌍성연동9구역) 김지연2(5. 쌍성연동9구역) 김진유(4. 삼선구역) 김혜정(5. 쌍성연동7구역) 박희정(2. 행당금호구역) 손지은2(3. 영등포구로구역) 안규빈(2. 강서구역) 양세현(1. 명륜연건구역) 유경진(2. 5,6가/주얼리구역) 이국선(4. 삼선구역) 이정주(2. 성북1구역) 이호준(2. 은평구역) 임영선(1. 명륜연건구역) 권옥경(3. 화양자양구역) 주성경(1. 경인구역) 주영신(5. 쌍성연동9구역) 최동하(2. 아일구역) 최혜련(5. 쌍성연동10구역) 한예은(5. 쌍성연동7구역) 한주영(5. 쌍성연동9구역)

여전도회찬양대 총회 및 수련회



여전도회찬양대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여전도회찬양대실에서 총회 및 수련회를 가졌다. 이진우 목사의 '여 화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를 마친 후 신.구 임원 인사와 함께 각종 시상식이 있었다. 이어 오병이어의 집에서 식사와 친교를 나눈 뒤 찬양 연습을 끝으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임기 2년을 마친 최민자 대장 후임으로 김인혜 권사가 새로운 대장이 되었다. 여전도회찬양대는 여전도회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 연습과 여전도회 월례회, 매달 마지막 주 수요기도회 및 각종 행사에 찬양으로 함께 한다. 또한 매년 10월에 있는 선교찬양제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 맘껏 발휘한다. 관심 있는 여전도회원들은 언제든지 여전도회찬양대의 문을 두드리길 기다리고 있다.

/ 원영숙 권사(여전도찬양대 서기)

성례주일 입교 및 세례식



1월 5일 성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 ①곽미순(여/성북1구역) ②구경미(여/효제구역) ③이순우(여/충신구역) ④이인남(남/효제구역)

⑤정현주(여/고양구역) ⑥주보경(여/청년부) ⑦한이재(여/효제구역)

입교 : ①김가람(남/쌍성연동8구역) ②박소울(여/쌍성연동9구역) ③성민규(남/한신2구역)

④황보재윤(남/한신2구역)

새해, 새가족 양육과정 개편(안) 세미나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새가족부의 2025 새가족 양육과정 개편(안) 세미나가 12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베들레헴에배실에서 김인혜 권사(새가족부 차장) 지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이 복음에 기초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잘 정착하여 함께 성장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한 개편(안)을 교구 장로, 구역장, 양육자 섬김이 등을 초대하여 설명하는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부터 새로운 4주간의 집체(순환)교육(새가족부), 기존 6주 과정의 매칭 양육 과정(새가족부), 세례 교육 및 일대일 제자 훈련(평신도학교 위탁), 데바레카 성경통독을 통해 새가족들이 연동의 신앙 공동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썩이 돌아 열매 맺기를 바라며 준비되었다. 새가족부 담당이신 김한 목사가 5가지 키워드(연결하다-동행하다-새롭다-가치를 나누다-족적을 남기다)로 양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에 따른 효과 등을 첨언하여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개편(안)의 이해도를 높여 공유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새가족 양육과정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음이 확인되는 시간이었다. 더 나은 양육과정을 위해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이 연동의 든든한 가족이 되길 바라며 열린 새가족부 양육과정 개편(안) 세미나는 기대의 달을 달고 은혜롭게 마쳤다./ 이미열 권사(새가족관리팀장)

5가지 키워드

1. 연결하다 : 관계를 연결하고 소속감을 심다.
2. 동행하다 :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
3. 새롭다 :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다.
4. 가치를 나누다 : 봉사과 사랑을 나누다.
5. 족적을 남기다 :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연동교회의 가족이 되다.

새가족 양육 과정 개편(안)

현재: 새가족 연령에 따른 양육자 1:1 매칭 → 6주간 교육

개편(안): 세 겹 줄 양육 체계 : 초신자와 기신자(세례교인) 교육과정 차별화

→ 새가족반(4주), 양육반(6주), 세례 교육(8주) 및 일대일 제자 훈련(16주)(위탁), 데바레카-성경통독(1년)

세 겹 줄 양육체계			
1단계 새가족반(섬김팀)	2단계 양육반(양육팀)	3단계 세례 및 일대일제자훈련(위탁) 데바레카-성경통독	
4주간 집체교육(순환) 초신자, 기신자(세례교인) 필수코스 안내를 중심으로 가볍게	6주간 1:1교육 초신자 필수코스 기존 교재로 양육	초신자 권장코스	초신자, 기신자
1주차 교회 역사 소개 및 미래 비전 2주차 복음과 믿음생활 3주차 교회소개 & 교회투어 4주차 구역 및 자치회 소개	▶ 1과 연동교회를 소개합니다. 2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3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4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5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 세례교육 (8주) 및 일대일제자 훈련(16주) 연결	데바레카 성경통독 (1년)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 주일학교 수료식

12월 22일(주일) 오후예배는 본당에서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다.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와 성경 봉독에 이어 신유진 전도사(유년부)의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눅2:11)'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기도 후 주일학교 수료식 & 근속·모범 교사상 시상식이 있던 뒤 주일학교 각 부서의 성탄 발표회가 이어졌다. 찬양과 율동, 말씀암송, 연극, 악기 연주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산타와 함께 등장한 김주용 위임목사의 성탄 인사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한목소리로 찬양 드린 후 축도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성탄발표회는 지하철 여행 컨셉으로 세대를 잇는 믿음의 정거장이라는 의미를 더해 영아부역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서의 역을 지나 연동교회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느끼는 곳, 바로 이곳이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한주 전부터 게일홀에 설치한 포토존과 각자의 베들레헴을 적어볼 수 있는 참여 보드 마련 등 기획부터 총 진행까지 함께 애써준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 학생들 모두의 수고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다. / 박윤신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LldXnO7sccU>



온세대 성탄 축하 예배



다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 찬양팀



수료식 영아부 대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위임목사



베들레헴역 포토존



오늘,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인가요? 참여 보드

성탄절 축하음악예배



12월 25일(월) 성탄절 예배는 연못골찬양대의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박요한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오전 11시 본당에서 찬송가 120장(오 베들레헴 작은 골)을 부른 뒤 장영순 공로권사의 말씀 봉독(빌립보서 1:3-6)과 윤윤자 은퇴장로의 기도 후에 김주용 위임목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다”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순서로 연못골찬양대가 부르는 축하 찬양 ‘더 스토리’(The Story, 최지은 곡)가 이어졌다.

[축하 찬양곡 ‘더 스토리’]

1. 서곡 2. 그 이야기 3. 이루어시네 4. 유대 땅, 베들레헴 5. 기쁨의 캐롤 6. 우리와 함께(임마누엘) 7. 성탄찬송

이번 성탄절 축하 찬양에는 연못골찬양대와 유년부찬양대가 함께하고, 객원으로 테너 김동현과 바이올리니스트 표상화, 그리고 신디 박하영이 참여하였다. 성탄절 축하 찬양 전에, 아홉 가정의 자녀 고해인, 노재현, 박수아, 박유하, 방주안, 윤희성, 이시은, 장지우, 장연우, 장성우, 정희우 등 11명에게 유아세례식이 있었다./진상협 기자



전국으로 생중계된 ‘새해맞이예배’



12월 31일(화) 밤 11시에 시작한 새해맞이예배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도로,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김대진 장로의 기도 후, 박문숙 권사의 시편 78:1-8 성경봉독이 있었다. 연못골찬양대의 ‘주님의 능력으로(Joseph M. Martin곡)’ 찬양과 무안사고를 위한 묵념기도 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위임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Fake Christian이 아닌 Faithful 한해를 돌아보는 사역의 영상과 이후 말씀엽서 작성을 하는 동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의 국악 찬양이 있었다. 특별히 이번 새해맞이예배는 CBS라디오(표준FM98.1)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진상협 기자



1, 2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1	1일(수) - 3일(금)	신년 특별저녁기도회(오후 7시, 본당)
	5일(주일)	제직회(4부예배 후, 본당)
	6일(월) - 8일(수)	목회자영성금식수련회(강화수양관)
	15일(수)	여전도회 및 권사회 신년하례예배(오전 11시, 본당)
	17일(금) - 19일(주일)	중등부, 고등부 겨울수련회(강화수양관)
	19일(주일)	여전도회주일, 여전도회 헌신예배(오후예배시)
	22일(수)	권사회 월례회(오후 2시, 드보라의 방)
	23일(목)	은퇴권사회 월례회(오전 11시, 베들레헴예배실), 온제직 간친회(오후 5시 30분, 본당)
	25일(토)	러브릿지-ON(溫)
	26일(주일)	교사 헌신예배(오후예배시)
	27일(월) - 30일(목)	설연휴(29일(수) : 설날)
2	2일(주일)	제직원 헌신예배/세미나(오후예배시)
	6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금) - 8일(토)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교회)
	15일(토)	러브릿지-ON(溫)
	16일(주일)	세계선교주일,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오후예배시)
	19일(수)	종로시찰 연합일일부흥회(오후 7시, 연동교회)
	21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1일(금) - 22일(토)	청년부 겨울수련회(강화수양관)
	23일(주일)	3·1절 기념주일, 당회(오후예배 후, 위즈덤하우스)

지난 호 ‘연못골(617호) 16-17p 정정합니다

*16P 하단 7째줄: 추가합니다.

최고 연장자는 96세 송경복 은퇴집사(길음구역)이다. -> 최고 연장자는 96세 송경복 은퇴집사(길음구역)와 남예희 명예권사(제기청량리회기구역)이다.

*17P 하단 8째줄: 수정합니다.

아들 박중서 장로, 며느리 정영희 권사, 딸 박혜란 집사와 박영란 집사, **손녀 박지수 집사**, 증손자 이 준 어린이가 필사에 참여했다. -> 아들 박중서 장로, 며느리 정영희 권사, 딸 박혜란 집사와 박영란 집사, **손녀 박지인 집사**, 증손자 이 준 어린이가 필사에 참여했다.

3일 동안 열린 ‘신년특별저녁기도회’

1월 1일(수) 새해 첫날부터 3일(금)까지 저녁 7시, “출발선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시78:7-8)를 주제로 본당에서 신년 특별저녁기도회가 진행되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새해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도록 새벽기도회에 이어 새해 첫 3일 동안 저녁에도 기도회를 연 것이다.

3일 내내 시작 1시간여 전부터 교회 마당에서는 군고구마, 호빵, 봉어빵, 어묵 등 겨울 수제간식 4종과 커피가 제공되어 추위 속에 달려온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며 성도간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도들은 3일 동안 영과 육의 양식을 준비해준 교회와 수고한 손길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 박현미 편집장

1월 1일(수)

말씀: 소망은 영혼구원에서 출발한다(행27:27-37)

김주용 위임목사

기도: 류관식 장로(선임장로)

특송: 게일찬양대



1월 2일(목)

말씀: 소망은 변하는 영혼이다(막4:1-9)

김주용 위임목사

기도: 박혜영 권사(1여 회장)

특송: 부용찬양대

1월 3일(금)

말씀: 소망은 뉘우치는 영혼에게 온다(삼하12:1-17)

김주용 위임목사

기도: 김성영 장로(1남 회장)

특송: 연못골찬양대



교역자 수련회



1월 10일(금) 김주용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15명, 새로 부임하는 이현주 목사(찬양인도) 등 총 17명은 식사와 볼링대회로 친목을 다지는 수련회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열린 볼링대회에는 위임목사가 준비한 찬조금이 상금으로 수여되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개인시상은 연동 131주년을 기념해 131점상, 수련회 날짜를 본 따 110점상, 최고 득점상, 최저 득점상을 마련했는데 박주안 목사가 최고 득점상을, 박점분 목사가 최저 득점상을 차지했다. 오한빛 목사는 131점보다 1점이 더 높은 132점을 기록해 아쉽게도 창립기념상을 받지 못했다. 볼링게임 후 가까운 카페로 이동해 차를 마시며 친목을 다졌다. / 김한 목사

권사회 및 여전도회 신년기도회



1월 15일(수) 오전 11시 권사회와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신년기도회를 가졌다. 박혜영 권사(1여 회장)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박문숙 권사(권사회 회장)의 기도예에 이어 문춘애 권사(2여 회장)의 성경봉독(마4:12-17)과 여전도회찬양대의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찬양이 있었다. 김주용 위임목사가 전해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설교 후 나라를 위하여(김경미 3여 회장), 교회를 위하여(장익숙 4여 회장), 권사회와 여전도회를 위하여(고수경 권사회 부회장) 순으로 특별기도가 진행되었다. 일년 동안 수고할 권사회와 각 여전도회의 실행위원 소개 후 위임목사의 축도로 신년기도회를 마쳤다. 이후 여전도회별로 흠뻑 월례회 모임을 가진 후 오병이여의 집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이 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 박현미 편집장

청년/장년부

여름 해외단기선교 신청 안내

올해 여름,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랑의 공동체(김태환/주애니 선교사)로 단기선교를 떠나기 위한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선교 일정
청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10일(목)
장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5일(토)
- 등록 안내
-등록 일정 : 2025년 2월 5일(수) 자정까지
- 문의
-청년 : 박주안 목사(010-3447-3483)
-장년 : 정영희 권사(010-3059-4475)



신년 교사 강습회



1월 11일(토) 문화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서울노회 미래세대부가 주최하고 서울노회 소속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25년 신년 교사 강습회'가 있었다. 올해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37:14, 행9:31)'로 김기완 목사(서울노회 미래세대부 부장)는 여는 예배 및 신년 부흥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예배 시간에 신입 교사 및 각 부서 부장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 각 부서별 사역 노하우 워크숍 시간을 통해 영유아 유치부 & 아동부는 찬양 활동을, 청소년 부서는 '청소년과 선생님'이 행복한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5년 GPL 공과 및 특별활동 워크숍 시간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박운신 기자

김상대 공로안수집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김상대 공로안수집사(수유구역)는 자신의 블로그 “아름다운 이야기”(blog.naver.com/sdkim2024)에 실린 1,000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해 같은 제목으로 한림원에서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전체 119쪽, 5장으로 구성되어 1.삶의 지혜와 감동, 2.한국을 세운 10가지 이야기, 3.주요 성경구절, 창세기 27장, 4.바이블 영작문 1장, 5.3500년의 지혜(목차) 순으로 편집되었다. 본문 내용은 문장마다 영작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감동적인 내용에 더해 유익함까지 얻을 수 있게 짜여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전도용 도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김상대 공로안수집사는 12월 23일(월)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6회 고대 성탄 축하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고대기독교인 교우상”을 수상했다. 기독교학생회, 기독교교우회를 통한 모교 복음화와 대학생, 군 장병 선교에 앞장서 온 헌신을 높이 평가한 고대 교우목회자와 고대 기독교교우회로부터 제18회 자랑스러운 고대 기독교인 교우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 날 상을 받았다. / 박현미 편집장



연동 토요 악기교실



연동 토요 악기교실 개강예배 후 단체사진

클래식 악기와 전자 기타를 배울 수 있는 ‘연동 토요 악기교실’이 12월 21일(토)에 시작되었다. 이 날 토요 악기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개강예배를 드리고 악기교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바이올린, 플룻, 전자기타반으로 흩어져 레슨을 받았다. 개강예배는 방영민 장로 기도로 시작되어 계대운 목사의 말씀 후 여명선 장로(미래세대부 부장)의 격려사로 진행되었다. ‘연동 토요 악기교실’이 시작된 계기는 첫째,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연동교회 주니어양상블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주니어양상블은 2024년에 창단 20주년이 되었지만 단원들이 많지 않아서 기념음악회를 열지 못했다. 그리고 주일에 합주 위주로 연습을 하지만 개인 레슨 및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요일에 개인 레슨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니어양상블 단원의 증원과 실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최근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찬양팀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전자기타반을 함께 만들게 되었다. 두 번째 계기는 효제초등학교 학생 등 교회 근처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악기교실을 통해 주니어양상블에도 참여하고 또래 친구들과 전자기타를 함께 배우며 친해지고 교회에도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현재 22명의 참여 학생 중 3명은 비기독교 학생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즐겁게 악기를 배우고 있다. 레슨 선생님들은 청년부에 소속된 학생들이며 일부는 예전에 주니어양상블 단원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동 토요 악기교실은 악기를 통해 교회 선·후배들이 만나고, 교회 이웃들이 편하게 교회를 찾아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니어양상블과 어린이전도단이 협업하여 레슨과 간식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처음 시도된 악기교실이라 부족한 점도 있지만 현재 5회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레슨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악기 연습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 올해 1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레슨과 캠프 등의 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양진실 단장(어린이전도단)

2025년 자치기관 임원 명단

안수집사회

회 장 : 김찬진	부회장 : 장동철	총 무 : 이성춘
서 기 : 김원장	회 계 : 박종화	

권사회

회 장 : 박문숙	부회장 : 고수경	서 기 : 김인혜
부서기 : 이명진	회 계 : 임정희	부회계 : 박현욱

제1남선교회

회 장 : 김성영	부회장 : 박재천	총 무 : 안창익
서 기 : 김용국	회 계 : 김옥기	

제2남선교회

회 장 : 이규진	부회장 : 이규성	총 무 : 박홍열
서 기 : 황석상	회 계 : 이상민	

제3남선교회

회 장 : 유기정	부회장 : 류창현	총 무 : 남득현
	회 계 : 민홍기	

제4남선교회

회 장 : 육경민	부회장 : 김선일	총 무 : 김동욱
-----------	-----------	-----------

제1여전도회

회 장 : 박혜영	부회장 : 김경은	서 기 : 김옥남
부서기 : 손옥분	회 계 : 김혜경	부회계 : 김경자2

제2여전도회

회 장 : 문춘애	부회장 : 송영옥	서 기 : 박재경
부서기 : 조수남	회 계 : 박영란	부회계 : 윤문희

제3여전도회

회 장 : 김경미	부회장 : 이미열, 김수진	서 기 : 최계숙
부서기 : 양윤정, 박재연	회 계 : 김이선	부회계 : 임미정, 이현승

제4여전도회

회 장 : 장의숙	부회장 : 김은희3	서 기 : 조현경
부서기 : 박수경	회 계 : 최민희	부회계 : 임경선

목회자영성금식수련회

1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연동교회 전임교역자 7명(김주용, 박요한, 계대윤, 오한빛, 김 환, 이진우, 박주 안)은 강화수양관에서 금식수련회를 가졌다. 금식을 하며,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 박요한 목사

베들레헴예배실 LED스크린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11월 25일(월)부터 12월 5일(목)까지 베들레헴예배실 리모델링을 위해 위드인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벽면 목공, 필름 작업, 바닥 타일, 창호, 도장, 조명 등)공사, 대일공조시스템에서 천장형 원형 냉난방기 교체, 얼음냉수(주)에서 LED스크린 백월(LED스크린, 자막소프트웨어, 비디오투치)을 설치하였다. 12월 15일(토) 예비일 새벽기도회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준공 감사기도, 130주년준비위원회 건축분과위원장 최기식 장로의 경과보고와 최현수 장로와 방송실의 도움으로 LED 스크린 시연식을 가졌다. / 김중은 기자



시공 전



시공 후



드보라의 방 인테리어 공사

11월 25일(월)부터 12월 5일(목)까지 위드인인테리어를 통해 드보라의 방 인테리어(벽면 목공, 필름, 바닥타일, 도장) 공사를 진행했다. / 김중은 기자



시공 전



시공 후



열림홀 리모델링

기존에 공연을 하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어린이부와 교인들 친교활동을 위하여 기존 무대 및 의자, 조명 등을 전면 철거하고 어린이부의 여와나 등 간단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였다. / 김중은 기자



시공 전



시공 후



연동교회 3 여전도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

※ 수익금 전액은 선교헌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일시 | 2025. 01. 19(주일), 08:30 ~ 13:30

장소 | 게일홀 앞 / 신협 앞 **주최** | 연동교회 3여전도회

참기름 12,000
들기름 13,000
참깨 7,000
들깨가루 7,000

- **예약판매** 18일(토) 오후 5시까지
- **문의** 김경미 회장 (010. 8991. 0085)
장진경 부장 (010. 2089. 5019)
- **계좌** 141 18 41414 5 하나 (장진경)

2025년 청소년주일학교 교사모집



주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각 부서별 부장 및 정호연 안수집사(☎010-8968-1659)
- 부서별 예배안내

부서명	예배시간	예배장소	부장
영아부	오전 11:30~12:30	가나의 집 3층	이현승 집사 010-4342-6625
유아부		가나의 집 2층	정윤정 집사 010-7272-6847
유치부		가나의 집 2층	유진희 권사 010-3005-8034
유년부		나사렛 예배실	최경희 권사 010-5623-8188
초등부		베들레헴 예배실	장미연 권사 010-8215-4848
중등부		가나의 집 지하1층	정선아 집사 010-3478-4660
고등부	오전 11:00~12:30	가나의 집 4층	유성욱 집사 010-2261-0589
어린이부	오후 1:30~3:00	가나의집 지하2층	윤종훈 안수집사 010-4735-0300



교회 첫 출석 아기 12월 15일 주일 3부 예배



정희우 아기 (남, 2024년 9월 6일생)

정김기보 집사, 안규은 집사의 아들/ 쌍쌍연동7구역
(안문경 집사, 김경원 권사 외손자)

많은 사람들의 기도으로 태어난 희우야~ 너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함께 만들어 가자. 사랑하고 축복한다!

유아세례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예배



고해인 아기 (여, 2024년 6월 21일생)

고진성 성도, 김은동 성도의 딸/ 쌍쌍 7구역

사랑하는 해인아. 아빠 엄마는 해인으로 인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해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늘 기도 할게. 사랑해
♡^^



노재현 (남, 2022년 4월 15일생)

노성은 성도, 박기연 성도 아들/ 화양자양구역
(노환규 집사, 김효숙 성도 손자)

재현이가 영육이 건강하고 강하게 잘 자라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매사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박수아 (여, 2024년 8월 19일생)

박예찬 성도, 한예은 성도 딸/ 쌍쌍연동9구역
(김옥자2 집사, 한성기 성도 외손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수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즐겁고 충만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아를 기대하며 감사기도드립니다.



박유하 (여, 2020년 6월 16일생)

박민균 성도, 이슬아 성도 딸/ 쌍쌍연동6구역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방주안 (남, 2023년 5월 2일생)

방성욱 집사, 김현경 집사 아들/ 쌍연동9구역
(방영호 안수집사, 김진 권사 손자)

여호와와 주안이에게 복을 주시고 주안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주안이에게 비추사 은혜
배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주안이에게로 향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윤희성 (남, 2019년 12월 1일생)

윤정권 성도, 이재정 성도 아들/ 구리남양주양평구역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느끼는 삶을 살게 하옵
소서



이시은 (여, 2023년 7월 29일생)

이영광 집사, 박주영 집사 딸/ 쌍연동7구역

사랑의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시온이를 보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기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시온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건강하고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세요. 감
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지우 (여, 2020년 6월 28일생), 장연우 (여, 2022년 1월 3일생), 장성우 (남, 2022년 1월 3일생)

장희산 성도, 장정례 성도 자녀/ 상계중계구역
(김영숙 집사 손자)

지우, 연우, 성우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따뜻한 아이
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
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정희우 (남, 2024년 9월 6일생)

정김기보 집사, 안규은 집사 아들/ 쌍연동9구역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태어난 희우야! 네가 받은 사랑을
너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친
구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
다운 가정 만들어 가자. 사랑해♥

새가족 소개



박선희 성도(1교구 명륜연건구역)



최정열, 임희재 성도(5교구 쌍쌍연동10구역)



조혜정 성도(2교구 성북1구역)



조병우, 김진숙 성도(5교구 연지구역)



마정화, 전우일 성도(3교구 서초방배구역)



정지훈, 김보림 성도(5교구 쌍쌍연동8구역)

2024년 YBS 하반기 종강

강좌	강사	장소	일시	수강인원
연동실버 아카데미	박점분 목사	베들레헴 예배실	9/4~11/27(수.오전10~12시)	51명
전도폭발	오한빛 목사	210호	9/5~11/28(목.오전10~12시)	3명
빌립보서	박주안 목사	온라인	9~11월 10강(주 1회)	약 55명
데바레카 성경통독	계대윤 목사	드보라의 방	1~12월(토.오전7시)	약 25명
크리스천 메뉴얼	김 환 목사	210호	9/7~11/15(토.오전7시)	6명
열왕기하	박요한 목사	나사렛 예배실 (온라인 병행)	9/7~12/21(토.오전7:10~8:50)	94명 (온라인 수강자 포함)
환경선교사	유미호 센터장	베들레헴 예배실	9/21~10/26(토.오전10~12시)	9명
1.제자양육 2.복스터디	김윤기 목사	뉴커머하우스	1.9/12~12/12(목.오후 6:30~8시) 2.9/10~12/10(화.오후 7시~9시)	1.제자양육: 2명 2.복스터디: 4명

/ 이지원 기자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러브릿지온(ON) : “생필품 기부로 전한 온정의 손길”

▶ 11~12월 매주 수요일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의 한글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다문화복지팀에서 다문화 가정 물품지원 및 배달하였다.

▶ 2024년 1월 27일(토) 시작한 러브릿지온(ON)은 후원과 봉사로 1년을 나눔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주요 물품은 가장 요청이 많은 부탄가스, 생수, 물티슈, 컵라면, 햇반이며, 그 외에도 여러 밀키트와 파스, 해충약, 핫팩, 의약품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219가구 중 쪽방상당소와 동사무소에서 50명씩 선정하여 복지재단에 알려주고, 복지재단은 물품을 취합해 연동교회 청년부와 다양한 협조기관과 함께 1년간 따뜻한 발자취를 이어올 수 있었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11월 “나눔바자회 기부금 전달식” ▶ 연동어린이집은 11월 28일(목) 기부금 전달식을 하였다. 어린이집이 진행한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정산하여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과 연동어린이집 친구들이 총 5,6가 주민센터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연동어린이집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12월 문화활동 “내꿈날 발표회”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12월 30일(월) 휴먼인러브와 함께하는 “내꿈날”발표회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 센터에서 배운 바이올린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아이들이 바자회를 통해 모은 작은 성금도 휴먼인러브 측에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11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14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349,182	39,370,797	2,149,487	2,149,487	47,978,033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481,509	678,511	86,483	13,731,530	47,978,033

(12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595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372,991	38,994,726	2,065,821	1,186,702	47,620,240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626,184	684,596	79,023	13,230,437	47,620,240

목양위원회

■결혼식

- 한재현(한두영 집사, 김은주 집사 아들/상계중계구역) 군과 최은비(최옥평 님, 김은주 님 딸) 양 - 11월 23일(토) 오전 11시, C인재원 그랜드홀 II홀
- 김영훈(김양수 성도, 김희경 집사 아들/연회홍제구역) 군과 조예람(조성덕 장로, 김연주 권사 딸) 양 - 11월 23일(토) 정오 12시, 아만티호텔 2층 아만티홀
- 최원호(최영익 장로, 전영혜 권사 아들/분당구역) 군과 김지선(김병훈 성도, 이윤옥 집사 딸) 양 - 10월 30일(토) 오전 11시 더 채플렛 노현 5층 라메르 홀
- 신해진(신근섭 집사, 유미현 집사/쌍문구역) 양과 안성진(한옥순 권사) 군 - 11월 29일(주일) 오후 5시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 단독홀

■장례식

- 전태훈 집사(전영선 성도 부친, 박정환 성도 장인, 박아일린예린 성도 외조부/쌍성연동 6구역) 별세, 10월 21일 포천서울교회 묘원에 모심
- 허문정 공로권사(진중환 은퇴장로 부인, 진준호 집사, 진현경 집사, 진재학 집사 모친, 김간수 집사 장모, 정현정 집사, 이지현 성도 시모/암구정청담삼성) 별세, 10월 30일 충남 금산 선영에 모심
- 이양임 집사 (주명재 집사 모친, 한성자 집사 시모/마포용산구역) 별세, 10월 29일 백합의 들에 모심
- 이계갑 성도(이성식 성도 부친/동작관악구역) 별세, 11월 3일 임실 호국원에 모심
- 정정임 은퇴집사(신인길 은퇴집사 부인/성북1구역) 별세, 11월 6일 경기도 양평 자하연 팔당에 모심
- 김숙자 권사(박관일 휴무안수집사 모친, 이영화 집사 시모) 별세, 11월 7일 분당 메모리얼파크에 모심
- 이규식 성도(이나옥 성도 부친/용인구역) 11월 7일 별세, 한양대학교에 시신기증
- 박경순 집사(김혜경 권사 모친, 이수진 장로 장모/동작관악구역) 별세, 11월 12일 과산호국원에 모심
- 이항수 명예권사(나병언 성도 부인, 나성욱 집사 모친, 최은희 권사 시모, 나하람 성도, 나예람 성도 조모/연지구역) 별세, 11월 14일 연동동산에 모심
- 최무자 명예권사(장길성 성도 부인, 장문석 성도, 강윤정 집사 모친, 박지연 성도 시모/상계중계구역) 별세, 11월 24일 연동동산에 모심
- 고정자 집사(백영화 성도 모친, 이규성 안수집사 장모/가락구역) 별세, 12월 6일 백합의 들에 모심
- 이진용 권사(김혜경 집사 모친, 우상권 집사 장모/수유구역) 별세, 12월 9일 연동동산에 모심
- 정성자 성도(남득현 집사 모친, 김현정2집사 시모, 남다은, 남윤테, 남다혜 성도 조모/신내구역) 별세, 12월 12일 춘천 안식원에 모심
- 윤승철 권사(윤희 권사 부친, 허봉석 집사 장인/길음구역) 별세, 12월 12일 동화경모공원에 모심
- 차영애 님(한성기 성도, 한덕기 성도 모친, 김옥자2 집사, 최재경 집사 시모, 한예은 성도 조모, 박예찬 성도 처조모/낙산구역) 별세, 12월 13일 포천 해화성당묘지에 모심
- 홍염숙 사모(장선언 안수집사, 장은옥 집사 모친, 김정하 집사 시모, 장재필 집사 장모, 장경희, 장운희, 장형운 성도 조모, 장서영, 장성현 성도 외조모/성북1구역) 별세, 12월 28일 연동동산에 모심
- 김정선 성도 (이재정 성도 모친, 윤정권 성도 장모/구리남양주양평구역) 별세, 2025년 1월 6일 예산추모공원에 모심



하루하루
소망을 두리

(이름:

연락처:

소속:

)

10-11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영복(성북2구역)-9147



성열숙(낙산구역)-0647



조선영(명일하남)-7541



진예현(초등부)-0117

*12-1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7권 618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5년 1월 19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박요한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다시 받은 새해에는
처음인 듯 살게 하소서!
매일을 경이롭게 만나는
처음 같은 우리 되게 하소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처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12-1  (885호)